

▶ 내신 기출 문학 창비-하편 ◀

Ⅲ 한국 문학의 성격과 역사

*이생규장전 (55문제)-----	1쪽
*엄마의 말뚝 2 (39문제)-----	33쪽
*이옥설 (30문제)-----	54쪽
*북어 대가리 (42문제)-----	65쪽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39문제)-----	85쪽
*제망매가, 동곡칠가 4 (30문제)-----	114쪽

Ⅳ 문학과 삶

*별 헤는 밤 (33문제)-----	129쪽
*입동 (33문제)-----	142쪽
*수오재기 (40문제)-----	162쪽
*비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한다. (35문제)-----	180쪽

◆빠른 전체 정답-----203쪽

◆해설-----206쪽

교재 버전: 2021.02.16

pt005pt (카톡 ID) : 내용 질문, 오류 신고

www.chongmangug.co.kr : 시험 대비 자료실, 오류 체크

'이생규장전' 핵심 정리

핵심정리 작품의 짜임

- ▣ 갈래 고전 소설, 한문 소설
- ▣ 성격 전기적, 비극적
- ▣ 주제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
- ▣ 특징
 - 비현실적이고 신비로운 내용을 다룸,
 - 작품에 시를 삽입하여 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전달함.

구조	중심 내용	구성 단계	행복/불행
전반부	이생과 최 씨의 만남과 사랑	발단	행복
	이생 부모의 반대로 인한 이별	전개1	불행
	부모의 반대를 극복하고 결혼함	전개2	행복
후반부	홍건적의 난으로 인한 최 씨의 죽음	위기	불행
	살아있는 이생과 죽은 최 씨의 재회	절정	행복
	이생과 최씨의 영원한 이별	결말	불행

등장인물의 성격 작가의 가치관 반영

이생	최 씨
소극적, 유약함	적극적, 강인함
↓	↓
부모님의 뜻에 따라 영남으로 떠남.	부모님께 자기 입장을 밝히고 도움을 요청해 사랑을 성취
도적에게 달아나 목숨을 지킴.	목숨을 바쳐 절개를 지킴.

내용	작가의 가치관
이생에 대한 최 씨의 영원한 사랑	단종에 대한 충성
죽음을 초월한 만남	이상을 실현할 수 없는 현실적 고뇌를 환상적 시공을 통해 승화
죽음을 통한 영원한 이별	삶과 죽음은 정해진 것

시와 노래의 삽입 금오신화

- 1 인물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
- 2 사건을 압축적으로 보여줌.
- 3 앞으로 전개될 사건의 특성을 알려줌.
- 4 사건 전개에 단조로움 피함.

- 이생규장전을 포함해 총 5편 수록
- 중국 전기소설 전등신화에 영향 받음.
- 굳건한 기상과 의지를 지닌 한국적 인물의 창조
- 조선을 배경으로 주제의식을 드러냄.
- 작가의 기구한 처지를 주인공의 비극적 결말에 투영
- 유·불·도 세계관 모두 반영
- 소설의 확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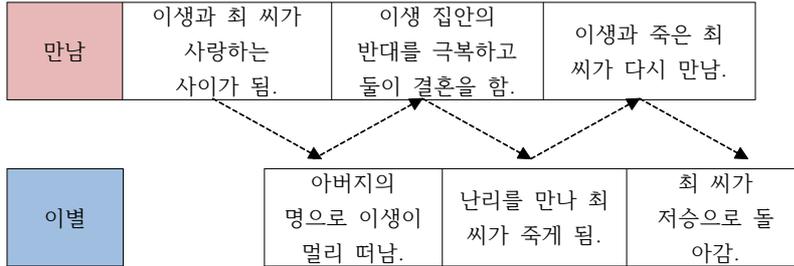
금오신화 속 작품 (이생규장전 외 4편)

- 만복사저포기**
남원에 사는 가난한 노총각 양생이 왜구의 침입 때 정절을 지키다 죽은 처녀의 환신을 만나 사랑을 나누다가 처녀가 떠난 후 장가를 가지 않고 산에서 약초를 캐며 살았다는 내용
- 취유부벽정기**
송도에 사는 홍생이 평양 부벽정에서 취해 놀다가 기자조선 마지막 임금의 딸인 기씨녀를 만나 나라가 망한 사연을 듣고 울분과 감회를 나누다 헤어진 후 선계로 간다는 내용

- 남염부주지**
미신과 불교를 배척하는 경주 박생이 꿈속에 열라국에 가 염왕과 토론하고 돌아온 후 열라국 왕이 되어 세상을 떠난다는 내용
- 용궁부연록**
송도의 한생이 용왕의 초대로 용궁에 가 시 짓는 재능을 발휘하고 돌아온 뒤 세상의 명리에 뜻을 두지 않았다는 내용

'이생규장전'의 핵심 내용 요약

1 다음은 이 작품의 주요 사건을 만남과 이별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채워 보자.



2 이 작품에 삽입된 시와 노래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말해 보자.

- 정서적 기능: 인물의 정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상황을 압축적으로 표현하여 분위기를 형성한다.
- 서사적 기능: 이전의 사건을 압축적으로 보여 주고 앞으로 전개될 사건의 특성을 알려 준다. 산문에 운문을 삽입하여 사건 전개에 단조로움을 피하게 한다.

3 다음 상황에서 보여 주는 ‘이생’ 과 ‘최 씨’ 의 대응 방식을 바탕으로 인물의 성격을 파악해 보자.

상황 인물	부모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됨.	난리를 겪으며 도적에게 쫓김.	성격
이생	부모의 뜻에 따라 영남으로 떠남.	달아나 혼자 목숨을 지킴.	→ 소극적, 유약함
최씨	부모님께 자기 입장을 밝히고 설득하여 사랑을 성취함.	목숨을 바쳐 절개를 지킴.	→ 적극적, 강인함

4 | 보기 |는 이 작품의 작가인 김시습에 관한 내용이다. 이를 참고하여 작가가 ‘최 씨’ 를 통해 말하고자 한 바를 추측해 보자.

보기

- 5세 때 이미 신동이라는 소문이 국왕인 세종에게까지 알려졌으며, 세종에게서 장래에 크게 쓰겠다는 전지를 받았다.
- 21세 때 수양 대군이 단종을 몰아내고 왕권을 잡았다는 소식을 듣고, 그길로 보던 책을 불사르고 승려가 되어 전국을 방랑하였다.

김시습은 어려서부터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었지만 수양 대군이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찬탈하자 불의한 세상에 타협하지 않고 스스로 소외된 삶을 택하였다. 작가는 난관 속에서도 ‘이생’에 대한 사랑을 놓지 않는 ‘최 씨’의 모습을 통해 끝까지 단종에 대한 충성을 지키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죽음을 초월하여 만남을 이어 나간다는 설정을 통해 자신의 이상을 실현시킬 수 없는 현실적 고뇌를 환상적, 초현실적 시공을 통해 예술적으로 승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5 다음은 드라마 「도깨비」의 시놉시스이다. 글을 읽고 전기적 요소가 현대에까지 문학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의 소재로 다루어지는 까닭을 말해 보자.

영웅으로 살다 역적으로 몰려 죽어 가던 김신은 늙지도 죽지도 않는 생을 살아가게 된다. 그는 900여 년 동안 심장에 검을 꽂은 채 도깨비로 살며 그 검을 뽑을 수 있는 도깨비 신부를 찾아다녔다. 저주를 푸는 일이 쉬울 줄 알았지만 그가 만난 어떤 여자도 검을 발견하지 못했고, 그러던 어느 날 '도깨비 신부'라 주장하는 소녀가 나타난다.

- 대부분의 사람에게 현실의 한계와 굴레를 벗어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기 때문이다.
- 인간에게 이성적, 과학적인 면모 외에 감성적, 공상적인 면모도 있기에 당연한 것 같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신축년에 홍건적이 고려의 서울인 개성을 점령하자 임금은 복주(福州)로 피란을 갔다. 홍건적은 집을 불태우고 사람을 죽이고 가축을 잡아먹었다. 백성들은 부부, 친척끼리도 서로를 보호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달아나 숨은 채 각자 자기 살 길을 도모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생도 가족들을 데리고 외진 산골로 숨었는데 도적 한 명이 칼을 빼어 들고 그들의 뒤를 쫓아왔다. 이생은 달아나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최 씨는 도적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도적이 자신을 겁탈하려 하자 최 씨는 크게 꾸짖으며 말하였다.

“호귀(虎鬼)야, 나를 죽여 삼켜 버려라. 차라리 죽어 승냥이와 이리의 배 속에 들어갈지언정 어찌 개돼지 같은 놈의 짝이 되겠느냐.”

도적은 노하여 최 씨를 죽였다. 이생은 거친 들판에 숨어서 겨우 목숨을 보전하다가 얼마 후 도적이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사시던 옛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집은 이미 전쟁 통에 불타 버린 후였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 씨의 집으로 가 보았더니 행랑채만 덩그러니 남아 황량한 가운데 쥐들이 짹짹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이생은 슬픈 마음을 억누를 길이 없어 작은 누각에 올라가서 눈물을 흘리며 길게 탄식할 뿐이었다. 어느새 날이 저물었다. 그는 우두커니 홀로 앉아 지난날을 가만히 떠올려 보았지만 모든 게 한바탕 꿈만 같았다.

이경(二更)쯤 되어 달빛이 희미한 빛을 토하며 들보를 비추었다. 그런데 회랑 끝에서 웬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멀리서부터 들려오더니 차츰 가까워졌다. 발자국 소리가 이생 앞에 이르렀을 때 보니 바로 최 씨였다.

이생은 그녀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너무도 사랑하는 나머지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물었다.

“당신은 어디로 피란하여 목숨을 부지하였소?”

최 씨는 이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저는 본디 양가의 딸로서 어려서부터 아버지의 가르침을 받들어 수놓기와 바느질에 힘쓰고 시서(詩書)와 인의(仁義)의 방도를 배울 뿐이었습니다. 오로지 규문의 법도만 알았을 뿐 어찌 집 밖의 일을 헤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당신께서 붉은 살구꽃이 핀 담장 안을 한 번 엿보신 후 제가 스스로 푸른 바다의 구슬을 바쳤지요. 꽃 앞에서 한 번 웃고는 평생의 은혜를 맺었고, 휘장 안에서 다시 만났을 때에는 은정이 백 년을 넘칠 것 같았지요.

말이 여기에 이르고 보니 슬프고 부끄러워 견딜 수가 없군요. 장차 평생을 함께하려고 하였는데 뜻밖의 횡액을 만나 구덩이에 툇굴게 될 줄 어찌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저는 끝까지 짐승 같은 놈에게 몸을 내맡기지 않고 스스로 진흙탕에서 육신이 찢기는 길을 택하였지요. 그건 천성이 저절로 그렇게 한 것이지 인정으로야 차마 견딜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외진 산골짜기에서 당신과 헤어진 후로 짝을 잃고 홀로 날아가는 새의 신세가 된 것이 너무 한스러웠습니다. 집도 없어

지고, 부모님도 돌아가셨으니 고단한 혼백조차 의지할 곳이 없었지만 절의는 귀중하고 목숨은 가벼우니 쇠잔한 몸뚱이일 망정 치욕을 면한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생각했지요. 하지만 누가 마디마디 끊어져 재처럼 식어 버린 제 마음을 불쌍히 여겨 주겠습니까? 그저 조각조각 끊어진 썩은 창자만 모아 두었을 뿐, 해골은 들판에 던져졌고 간과 쓸개는 땅바닥에 버려져 흙먼지를 뒤집어쓰고 있지요. 가만히 지난날의 즐거움을 헤아려 보기도 하지만 오늘의 근심과 원한만이 마음에 가득 차 버렸습니다.

이제 추연(鄒衍)이 피리를 불어 적막한 골짜기에 봄바람을 일으켰으니 저도 천녀(倩女)의 혼이 이승으로 돌아왔듯이 이곳으로 돌아오렵니다. 봉래산에서 십이 년 만에 만나자는 약속을 이미 단단히 맺었고, 취굴(聚窟)에서 삼생(三生)의 향이 그윽이 풍겨 나오니 그동안 오래 떨어져 있던 정을 되살려서 옛 맹세를 저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하겠어요. 만약 당신이 아직도 옛 맹세를 잊지 않으셨다면 저는 끝까지 잘해 보고 싶어요. 당신도 허락하시는 거지요?”

- 김시습, '이생규장전'

소담고등학교 (세종)

1. 이생과 최 씨의 재회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전란으로 인하여 두 사람은 가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헤어졌다.
- ② 두 사람이 공유하고 있는 약속의 매개물을 통해 재회하게 된다.
- ③ 두 사람은 전란 중에 만난 동포의 도움으로 우연히 만나게 된다.
- ④ 최 씨는 이생과의 두 번째 만남을 통해 이생과의 영원한 이별을 고하고 있다.
- ⑤ 두 사람은 목숨보다 절개를 지키고자 한 최 씨의 선택으로 이별하게 되었다.

소담고등학교 (세종)

2. 윗글에 나타난 전기적인 내용을 찾고 이를 통해 주제와 관련하여 작가가 의도하고자 한 바를 <조건>에 맞게 서술하십시오.

<조건>

1. 윗글에 나타난 비현실적인 내용만을 쓸 것.
2. 작품의 주제를 언급할 것.

Ⅲ. 이생규장전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앞부분 줄거리>

개성에 사는 이생은 어느 봄날 우연히 담 너머로 아름다운 여인을 보게 되고, 여인(최 씨) 역시 이생에게 마음이 끌린다. 편지로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두 사람은 결국 사랑하는 사이가 된다. 두 사람의 관계를 눈치 챈 이생의 아버지는 이생을 지방으로 보내고, 최 씨는 상사병을 얻는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최 씨의 부모는 간곡한 딸의 청에 따라 이생의 부모를 설득하고 결국 이생과 최 씨는 혼례를 올린다.

신축년에 흥건적이 고려의 서울인 개성을 점령하자 임금은 복주(福州)로 피란을 갔다. 흥건적은 집을 불태우고 사람을 죽이고 가축을 잡아먹었다. 백성들은 부부, 친척끼리도 서로를 보호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달아나 숨은 채 각자 자기 살 길을 도모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이생도 가족들을 데리고 외진 산골로 숨었는데 도적 한 명이 칼을 빼어 들고 그들의 뒤를 쫓아왔다. 이생은 달아나 겨우 목숨을 건졌지만 최 씨는 도적에게 사로잡히고 말았다. 도적이 자신을 겁탈하려 하자 최 씨는 크게 꾸짖으며 말하였다.

㉠“호귀(虎鬼)야, 나를 죽여 삼켜 버려라. 차라리 죽어 승냥이와 이리의 배 속에 들어갈지언정 어찌 개돼지 같은 놈의 짝이 되겠느냐.”

도적은 노하여 최 씨를 죽였다. 이생은 거친 들판에 숨어서 겨우 목숨을 보전하다가 얼마 후 도적이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고 부모님이 사시던 옛집을 찾아갔다. 그러나 집은 이미 전쟁 통에 불타 버린 후였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 씨의 집으로 가 보았더니 행랑채만 덩그러니 남아 황량한 가운데 쥐들이 짹짹대고 새들이 지저귀고 있었다.

이생은 슬픈 마음을 억누를 길이 없어 작은 누각에 올라가서 눈물을 흘리며 길게 탄식할 뿐이었다. 어느새 날이 저물었다. 그는 우두커니 홀로 앉아 지난날을 가만히 떠올려 보았지만 모든 게 한바탕 꿈만 같았다.

이경(二更)쯤 되어 달빛이 희미한 빛을 토하며 들보를 비추었다. 그런데 회랑 끝에서 웬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멀리서부터 들려오더니 차츰 가까워졌다. 발자국 소리가 이생 앞에 이르렀을 때 보니 바로 최 씨였다.

㉢이생은 그녀가 이미 죽은 것을 알고 있었지만 너무도 사랑하는 나머지 한 치의 의심도 없이 물었다.

“당신은 어디로 피란하여 목숨을 부지하였소?”

최 씨는 이생의 손을 잡고 한바탕 통곡하더니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중략 줄거리>

이생은 귀신이 되어 돌아온 최 씨와 함께 제물을 찾아 부모의 유해를 수습하고 살아 있던 때와 마찬가지로 사랑을 나누며 지낸다.

어느 날 저녁 최 씨가 이생에게 말했다.

“세 번이나 좋은 시절을 만났지만, 세상일은 뜻대로 되지 않고 어그러지지만 하네요. 즐거움이 다하기도 전에 갑자기 슬픈 이별이 닥쳐오니 말이에요.”

그러고는 마침내 오열하기 시작하였다. 이생은 깜짝 놀라서 물었다.

“무슨 일로 그러시오?” / 최 씨가 대답하였다.

“저승길의 운수는 피할 수가 없답니다. 하느님께서 저와 당신의 연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저희가 아무런 죄악도 저지르지 않았음을 아시고 이 몸을 환생시켜 당신과 지내며 잠시 시름을 잊게 해 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인간 세상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산사람을 미혹시킬 수는 없답니다.”

최 씨는 시녀를 시켜 술을 올리게 하고는 <옥루춘(玉樓春)>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면서 이생에게 술을 권하였다.

창과 방패가 눈에 가득한 싸움터

옥이 부서지고 꽃이 흩날리고 원앙도 짝을 잃네.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을 그 누가 묻어 주랴.

피에 젖어 떠도는 영혼 하소연할 곳 없어라.

무산 선녀가 고당에 한 번 내려온 후

깨졌던 거울이 거둬 갈라지니 마음만 쓰러라.

이제 한 번 이별하면 둘 사이 아득하니

하늘과 인간 사이에 소식마저 막히리라.

최 씨는 한 마디씩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눈물을 삼키느라 곡조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였다.

이생도 슬픔을 견잡지 못하여 말하였다.

“내 차라리 당신과 함께 저세상으로 갈지언정 어찌 무로히 홀로 살아남을 수 있겠소? 지난번 난리를 겪은 후 친척과 종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해가 들판에 버려져 있을 때 당신이 아니었다면 누가 부모님을 묻어 드릴 수 있었겠소? 옛 성현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이 살아 계실 때는 예로써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는 예로써 장사 지내야 한다.’라고 했는데 당신의 천성이 효성스럽고 인정이 두터웠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다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요. ㉣당신의 정성에 너무도 감격하지만 한편으로는 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참을 길이 없었소. 부디 그대는 인간 세상에 더 오래 머물다가 백 년 후 나와 함께 흠으로 돌아가시구려.”

최 씨가 대답하였다.

“당신의 목숨은 아직도 한참 더 남아 있지만 저는 이미 귀신의 명부에 이름이 실렸으니 이곳에 더 오래 머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제가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하며 미련을 두어 운명의 법도를 어기게 된다면 단지 저에게만 죄과가 미치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도 누를 끼치게 될 거예요. 다만 제 유해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어느 날 저녁 최 씨가 이생에게 말했다.

“㉠세 번이나 좋은 시절을 만났지만, 세상일은 뜻대로 되지 않고 어그러지기만 하네요. 즐거움이 다하기도 전에 갑자기 슬픈 이별이 닥쳐오니 말이에요.”

그러고는 마침내 오열하기 시작하였다. 이생은 깜짝 놀라서 물었다.

“무슨 일로 그러시오?”

최 씨가 대답하였다. / “저승길의 운수는 피할 수가 없답니다. 하느님께서 저와 당신의 연분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또 저희가 아무런 죄악도 저지르지 않았음을 아시고 이 몸을 환생시켜 당신과 지내며 잠시 시름을 잊게 해 주신 것이었어요. 그러나 인간 세상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산사람을 미혹시킬 수는 없답니다.”

최 씨는 시녀를 시켜 술을 올리게 하고는 <옥루춘(玉樓春)>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면서 이생에게 술을 권하였다.

창과 방패가 눈에 가득한 싸움터
 옥이 부서지고 꽃이 흩날리고 원앙도 짝을 잃네.
 여기저기 흩어진 해골을 그 누가 묻어 주랴.
 피에 젖어 떠도는 영혼 하소연할 곳 없으랴.

[A]

무산 선녀가 고당에 한 번 내려온 후
 깨졌던 거울이 거듭 갈라지니 마음만 쓰러라.
 이제 한 번 이별하면 둘 사이 아득하니
 ㉡하늘과 인간 사이에 소식마저 막히리라.

최 씨는 한 마디씩 노래를 부를 때마다 눈물을 삼키느라 곡조를 제대로 이어가지 못하였다.

“내 차라리 당신과 함께 저세상으로 갈지언정 어찌 무로히 홀로 살아남을 수 있겠소? 지난번 난리를 겪은 후 친척과 종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돌아가신 부모님의 유해가 들판에 버려져 있을 때 당신이 아니었다면 누가 부모님을 묻어 드릴 수 있었겠소? 옛 성현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이 살아 계실 때는 예로써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는 예로써 장사 지내야 한다.’라고 했는데 당신의 천성이 효성스럽고 인정이 두터웠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다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요. 당신의 정성에 너무도 감격하지만 한편으로는 나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을 참을 길이 없었소. 부디 그대는 인간 세상에 더 오래 머물다가 백 년 후 나와 함께 흙으로 돌아가시구려.”

최 씨가 대답하였다. / “당신의 목숨은 아직도 한참 더 남아 있지만 저는 이미 귀신의 명부에 이름이 실렸으니 이곳에 더 오래 머물 수가 없답니다. 만약 제가 굳이 인간 세상을 그리워하며 미련을 두어 운명의 법도를 어기게 된다면 단지 저에게만 죄과가 미치는 게 아니라 당신에게도 누를 끼치게 될 거예요. 다만 제 유해가 아무 곳에 흩어져 있으니 만약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면 그것이나 거두어 비바람과 햇볕 아래 그냥 나뒹굴지 않게 해 주세요.”

두 사람은 서로 바라보며 눈물만 줄줄 흘렸다.

“서방님, 부디 몸 건강하세요.” / ㉣말을 마친 최 씨의 자취가 점차 희미해지더니 마침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이생은 그녀의 유골을 거두어 부모님 무덤 곁에 묻어 주었다. 장사를 지낸 뒤 이생도 최 씨와의 추억을 생각하다 병을 얻어 몇 달 만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마다 애처로워하며 그들의 절의를 사모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 김시습, 「이생규장전」

원주고등학교 (강원)

6. 윗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의 삽입을 통해 서술 방식의 통일성을 획득한다.
- ② 인물의 내면적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전개한다.
- ③ 시간을 역순행적으로 구성하여 인물의 과거를 드러낸다.
- ④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와 성격을 간접적으로 제시한다.
- ⑤ 설화적 기법으로 마무리하여 독자들에게 여운을 느끼게 한다.

원주고등학교 (강원)

7. <보기>는 위 글을 바탕으로 드라마를 제작하기 위한 기획 의도이다. 기획 의도를 살리기 위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3개)

<보기>
 죽은 이와 사랑은 다소 생소한 소재이지만 원작에 최대한 충실하려고 한다. 때로는 비현실적인 요소가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 질 때가 있다. 이생과 최 씨의 사랑이 가벼운 만남에 익숙한 현대의 시청자들에게 삶을 새롭게 인식할 기회를 줄 것이다.

- ① 이생과 최 씨의 사랑을 최대한 강조하되, 비현실적인 요소는 줄이는 것이 좋겠어.
- ② 이생과 최 씨의 만남을 밝고 경쾌하게 묘사하여, 현대 시청자들의 감각과 기호에 맞출 필요가 있겠군.
- ③ 최 씨의 역할을 맡은 배우는 신비하고 기이한 모습으로 시청자들에게 다가가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현실을 잊게 해야겠군.
- ④ 이생이 최 씨의 정체를 알면서도 변함없이 그녀를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시청자들이 진정한 사랑의 의미와 소중함을 깨닫게 해야겠군.
- ⑤ 뮤지컬적 요소를 가미해 본문에 삽입된 시는 최 씨가 실제로 노래를 하면서 자신의 현재 심리 상태를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게 하면 좋겠어.

“엄마의 말뚝 2” 분석 명단

핵심정리 | 작품의 짜임

- ▣ 갈래 **현대소설, 연작소설**
- ▣ 성격 **자전적, 회고적**
- ▣ 주제 **전쟁의 상처와 극복 의지**
- ▣ 특징
 - * 1인칭 시점으로 사건을 더욱 생생하게 드러냄.
 - *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의 회상하는 역순형적 구성을 취함.
 - * 전쟁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개인의 피해 의식을 선명하게 드러냄.

- 발단**

‘나’가 집을 비운 사이 첫아이가 화상을 입는 사고를 당하고, 그 후 ‘나’는 집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고가 ‘나’의 몸과 마음이 집에서 떠나 있을 때 일어났다고 믿게 된다.
- 전개**

어느 날 외출했다가 돌아온 ‘나’는 가족들에게 친정어머니가 눈길에서 넘어져 다치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어머니가 계신 병원으로 간다.

- 위기**

어머니는 다리가 부러져 수술을 받고, 수술 후 마취가 풀리면서 허공에 대고 소리치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인다. 환각 속에서 6·25 전쟁 때 아들을 죽인 군인을 모습을 본 것이다.
- 절정**

‘나’는 오빠가 인민군 치하에서 어쩔 수 없이 의용군에 지원했다가 심신이 파괴해진 채로 겨우 탈출했으나, 곧 군관에게 발각되어 총을 맞고 숨진 과거를 떠올린다.
- 결말**

어머니는 정신을 차린 후, 자신이 죽으면 시신을 화장하여 오빠의 유골을 뿌린 곳에 뿌려 달라고 부탁한다.

연작소설 「엄마의 말뚝」

- 엄마의 말뚝 1**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시골에서 남편을 잃은 어머니가 어린 남매를 이끌고 고향을 떠나 고향 끝에 서울 번두리에 삶의 터전을 마련하기까지의 이야기
- 엄마의 말뚝 2**

중산층 전업주부로 안정된 삶을 살아가던 ‘나’가 어머니의 다리 부상을 계기로 과거 6·25 전쟁 당시 오빠를 인민군의 총살로 입게 된 참담한 기억을 떠올리게 되는 이야기

엄마의 말뚝 3

화장되어 강물에 뿌려지기를 바랐던 어머니의 생전 소망과는 달리 돌아가신 후 서울 근교의 공원묘지에 묻히기까지의 이야기

‘엄마의 말뚝’의 의미

1. 엄마와 가족의 서울 입성, 사대문 안에서 살아가겠다는 엄마의 태도
2. ‘나’가 엄마에게 느끼는 정신적 구속감
3. 오빠의 죽음을 가슴에 팍팍처럼 박고 살아온 엄마의 한



“엄마의 말뚝 2” 모티브인 함양 문제

1 이 작품의 내용을 떠올리며 다음 질문에 답해 보자.

- 어머니가 환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은 어떤 것인가?
▶인민군 군관이 오빠를 해치는(해치려는) 상황
- 어머니가 유언 삼아 '나'에게 부탁한 것은 무엇인가?
▶묘지를 쓰지 말고 오빠처럼 해 달라는 것(확장하여 뺏가루를 고향 땅을 향해 뿌려 달라는 것)
- 어머니가 오빠의 유골을 강화도에 가서 뿌렸던 까닭은 무엇인가?
▶분단으로 인해 갈 수 없는 고향 개풍군 땅이 보였기 때문

2 이 작품에서 시간의 흐름이 어떻게 구성되었는지 정리하고, 그 효과가 무엇인지 파악해 보자.

이 작품은 '현재 → 과거 → 현재'의 시간적 흐름을 갖고 있다. 이런 구성을 통해 현재의 시점에서 과거를 돌아볼 수 있게 함으로써 사건이 갖는 비극성을 더 부각하여 보여 주고 있다.

3 “어머니는 아직도 투병 중이시다.” 라는 마지막 구절의 뜻을 이 작품의 제목과 관련하여 짐작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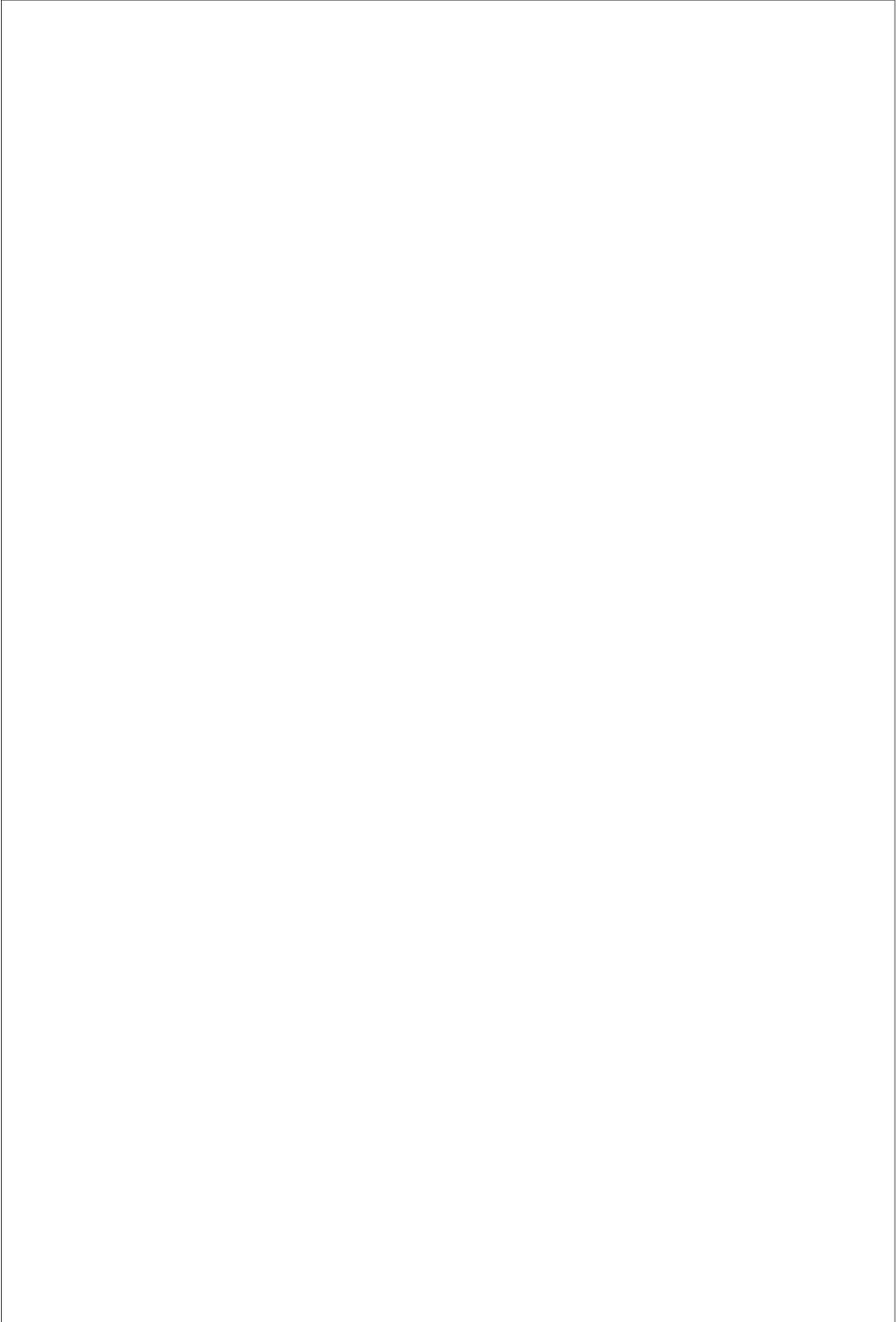
어머니가 진정으로 앓고 있는 병은 ‘분단과 전쟁으로 인한 한’이라고 할 수 있다. 제목에서 ‘말뚝’은 어머니의 가슴에 박혀 빠지지 않는 한과 상처를 가리킨다. 마지막 문장은 남북 분단이 고착되어 어머니의 상처와 한이 말뚝이 박힌 것처럼 여전히 아픔을 지닌 채 치유되지 않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4 이 작품의 다음 부분을 다시 읽고, ‘나’의 입장에서 어머니에 관해 서술하는 것이 주는 효과를 말해 보자.

“군관 동무, 군관 선생님, 우리 집엔 여자들만 산다니까요.”
어머니의 눈의 푸른 기가 애처롭게 흔들리면서 입가에 비굴한 웃음이 감돌았다. 나는 어머니가 환각으로 보고 있는 게 무엇이라는 걸 알아차렸다. 가엾은 어머니, 차라리 저승의 사자를 보시는 게 나았을 것을…….

이 작품은 등장인물인 ‘나’가 자신의 내면 심리와 어머니를 관찰한 점을 서술하는 1인칭 주인공 시점을 취하고 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은 서술자와 독자의 거리가 가까워 공감대 형성에 유리하며 독자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다. 위에서는 전쟁 중 아들을 잃고 여전히 고통을 안고 사는 어머니를 관찰한 것(처음 두 문장)과 어머니의 고통을 바라보는 ‘나’의 속마음(마지막 두 문장)을 함께 서술함으로써 전쟁의 상처를 더욱 선명하고 실감 나게 전달하고 있다.

Ⅲ. 엄마의 말뚝 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안 된다. 안 돼. 이노움. 안 돼. 너도 사람이냐? 이노움, 이노움.”

나는 벽까지 떠다 밀린 채 와들와들 떨면서 점점 심해 가는 어머니의 광란(狂亂)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의 몸에서 수술한 다리만 빼고는 온몸이 노한 파도처럼 출렁였다. 그래서 더욱 그 다리는 어머니의 몸이 아닌 이물질처럼 괴기스러워 보였다. 어머니의 그 다리와 아들과의 동일시가 나한테까지 옮겨 붙은 것처럼 나는 그 다리가 무서웠다.

“안 된다, 이노움.”이라는 호통과 “군관 나오리, 군관 선생님, 군관 동무”라는 아부를 번갈아 하며 몸부림치는 서술에 마침내 링거 줄이 주삿바늘에서 빠져 버렸다. 혈관에 꽂힌 채인 주삿바늘을 통해 피가 역류해 환자복과 시트를 점점 물들였다. 피를 보자 어머니의 광란은 극에 달했다.

“이노움, 게 섰거라. 이노움, 나도 죽이고 가거라. 이노움.”

어머니는 눈물이 범벅된 얼굴로 이를 갈았다. 틀니를 빼 놓아 잇몸만으로 이를 가는 시늉을 하는 게 얼마나 처참한 것인지 나 말고 누가 또 본 사람이 있을까. 이게 꿈이었으면, 꿈이었으면. 어머니는 이 세상 소리가 아닌 기성(奇聲)을 지르며 머리카락을 부득부득 쥐어뜯다가 오줌을 받아 내는 호스도 다 뜯어 버렸다. 피비린내가 내 정신을 혼미케 했다. 퍼뜩 정신이 나서 구원을 청하려 나가려는데 어머니의 기성이 바깥까지 들렸던지 간호원이 뛰어왔다. 뒤미처 나이 지긋한 수간호원도 달려왔다. 어머니의 몸에 부착했던 의료 기구들을 원상 복구하기 위해선 여러 사람의 힘이 필요했다. 어머니는 힘이 장사였다. 내가 수간호원과 다른 간호원과 함께 어머니를 힘껏 짊어 누르는 동안 담당 간호원이 어머니가 뽑아낸 것들을 다시 삽입했다. 링거는 솟제 발등으로 옮겨 꽂았다.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까?”

나는 수간호원에게 원망스럽게 말했다.

“너무 심려 마세요. 흔하진 않지만 이런 특이 체질이 아주 드문 것도 아니니까요. 곧 나아지실 겁니다.”

수간호원이 이렇게 나를 위로했다. 어머니의 악몽이 특이 체질 탓이라고? 하긴 타인의 꿈에 대해 누가 감히 안다고 할 수 있으랴?

이제 “너 죽고 나 죽자.”라는 발악으로 변한 어머니의 몸부림은 지칠 줄 몰랐다. 수간호원이 간호원에게 지시해서 침대 양쪽 난간을 올리고 끈을 가져다가 어머니의 사지를 꽂꽂 묶게 했다.

“따님 된 마음에 좀 안됐다 싶으셔도 참으세요. 이런 경우는 이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제 안심하고 눈 좀 붙이세요. 지레 병나시겠어요. 곧 정상으로 돌아오실 테니 염려 마시고…….”

그들은 어머니를 묶어 놓고 나를 위로하고 병실을 나갔다. 나는 지칠 대로 지쳐서 신 신은 채 보조 침대에 상반신을 꺾었다. 그러나 웬걸, 원한 맺힌 맹수처럼 으르렁대던 어머니가 예잇 하고 한번 기합을 넣자 사지를 묶은 끈은 우지직 끊어지기도 하고 혹은 풀리기도 했다. 어머니는 다

시 길길이 뛰기 시작했다. 참으로 불가사의한 괴력이었다. 목소리도 뜻이 통하는 말이 아니라 원한의 울부짖음과 독한 악담이 섞인 소름 끼치는 기성이었다. 조금도 과장 없이 간장을 도려내는 아픔과 함께 내 속에서도 불가사의한 괴력이 솟았다. 나는 이를 악물고 어머니에게로 돌진했다. 다시는 아무의 도움도 청하지 않고 어머니와 맞서리라 마음 먹었다. 이걸 아무의 도움도 간섭도 필요 없는 우리 모녀만의 것이다.

(나)

서울이 수복(收復)되고 화장장이 정상화되자마자 어머니는 오빠를 화장할 것을 의논해 왔다. 그때 우리와 합하게 된 올케는 아비 없는 아들들에게 무덤이라도 남겨 줘야 한다고 공동묘지라라도 이장할 것을 주장했다. 어머니는 오빠를 죽게 한 것이 자기 죄처럼, 젊어 과부 된 며느리한테 기가 죽어 지냈었는데 그때만은 조금도 양보할 기세가 아니었다. 남편의 임종도 못 보고 과부가 된 것도 억울한데 그 무덤까지 말살하려는 시어머니의 모진 마음이 야속하고 정떨어졌으려면 그런 기세 속엔 거역할 수 없는 위엄과 비통한 의지가 담겨 있어 종당엔 올케도 순종을 하고 말았다.

오빠의 살은 연기가 되고 뼈는 한 줌의 가루가 되었다. 어머니는 앞장서서 강화로 가는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우린 묵묵히 뒤따랐다. 강화도에서 내린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서 멀리 개풍군 땅이 보이는 바닷가에 섰다. 그리고 지척(咫尺)으로 보이되 갈 수 없는 땅을 향해 그 한 줌의 먼지를 훨훨 날렸다. 개풍군 땅은 우리 가족의 선영이 있는 땅이었지만 선영에 못 묻히는 한을 그런 방법으로 풀고 있다곤 생각되지 않았다. 어머니의 모습엔 운명에 순종하고 한을 지그시 품고 삭이는 약하고 다소곳한 여자 티는 조금도 없었다. 방금 출전(出戰)하려는 용사처럼 씩씩하고 도전적이었다.

어머니는 한 줌의 먼지와 바람으로써 너무도 엄청난 것과의 싸움을 시도하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그 한 줌의 먼지와 바람은 결코 미약한 게 아니었다. 그야말로 어머니를 짓밟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간, 어머니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단이란 괴물을 홀로 거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어머니는 나더러 그때 그 자리에서 또 그 짓을 하란다. 이제 자기가 몸소 그 먼지와 바람이 될 테니 나더러 그 짓을 하란다. 그 후 30년이란 세월이 흘렀건만 그 괴물을 무화(無化)시키는 길은 정녕 그 짓밖에 없는가?

“너한테 미안하구나, 그렇지만 부탁한다.”

어머니도 그 짓밖에 물려줄 수 없는 게 진정으로 미안한 양 표정이 애달프게 이지러졌다.

아아, 나는 그 짓을 또 한 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어머니는 아직도 투병 중이시다.

-박완서, ‘엄마의 말뚝2’

김포제일고등학교 (경기)

1.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액자식 구성을 통해 사건을 입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 ② 장면의 빠른 전환을 통해 사건을 급격하게 진행시키고

있다.

- ③ 인물의 경험을 삽화 형식으로 나열하여 주제를 암시하고 있다.
- ④ 전쟁의 참상과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비극적 현실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⑤ 인물의 복잡한 심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적 배경을 사용하고 있다.

김포제일고등학교 (경기)

2. 윗글의 서술상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를 교체하며 새로운 사건을 도입하고 있다.
- ② 공간적 배경을 전환시켜서 긴박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③ 인물의 행동을 객관적으로 묘사하여 사실성을 강화하고 있다.
- ④ 서술자가 내적 독백을 통해 자신의 심리 상태를 드러내고 있다.
- ⑤ 어머니와 서술자의 다양한 과거 경험들이 보여주기 방식으로 나열되어 있다.

김포제일고등학교 (경기)

3. 윗글을 통해 유추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 ① 올케는 결국 어머니의 바람대로 ‘오빠’를 화장하게 되었다.
- ② 나는 개풍군이 보이는 바닷가에서 ‘오빠’의 유골을 뿌린 적이 있다.
- ③ 어머니는 악몽으로 인해 잠을 충분히 잘 수 없어서 입원하게 되었다.
- ④ 어머니는 환각 속에서 아들을 지켜내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다.
- ⑤ 나는 내키지는 않지만 어머니의 유언대로 행동하게 될 것을 예감하고 있다.

김포제일고등학교 (경기)

4. (가)를 영상화하기 위해 제시한 의견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철이: 공포스러운 상황을 나타내는 효과음을 삽입하는 것도 좋겠군.
- ② 영이: 병원을 배경으로 촬영해야하기 때문에 인물들의 의상도 그에 맞게 준비해야 될 것 같아.
- ③ 순이: 간호사들의 설득에 따라 안정을 되찾고 차분하게 대처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담아내야겠어.
- ④ 한이: 간호사들이 정신을 못 차리는 어머니를 침대에 묶는 극적인 상황에 어울릴만한 배경 음악을 삽입해야겠어.
- ⑤ 통이: 어머니 역할을 맡은 배우는 환자이긴 하지만 과거에 험싸인 상태이기 때문에 광기에 가까운 연기를 하도록 지시해야 될 것 같아.

김포제일고등학교 (경기)

5. 윗글을 읽은 학생의 반응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수간호사가 등장하면서 사건의 국면이 전환되고 있군.
- ② 이데올로기의 대립을 중심으로 역사적인 상황을 그리고 있군.
- ③ 병원에서의 분위기를 전달하며 사건의 긴장감을 고조하고 있군.
- ④ 과거와 현재를 대비시키며 선과 악에 대한 역전적인 인식을 보여주고 있군.
- ⑤ 상징적 소재를 활용하여 인물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군.

김포제일고등학교 (경기)

6. ‘오빠’에 대한 다음의 설명을 참고할 때,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오빠’는 학교에서는 수재소리를 듣고, 어머니에게는 효성이 지극했던 아들이었다. 한때 좌익에 몸담았다가 전향한 경험 때문에 6.25 전쟁 때, 서울이 인민군 치하에 놓이게 되자 곤란을 겪게 되었다. 인민군이 당장 목숨이 끊어지지 않게 다리만 겨냥하고 총을 쏘았고,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한 채 결국 며칠 만에 죽음에 이른다.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송두리째 인생이 망가져버린 비운의 인물이다.

- ① 어머니의 입원을 계기로 모녀에게는 ‘오빠’에 대한 기억이 떠오르게 된다.
- ② ‘오빠’에 대한 원통함과 집착이 어머니가 가장 약해진 순간에 되살아 난 것이다.
- ③ ‘오빠’가 죽어가며 느꼈을 아픔이 어머니의 다리로 전이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 ④ 어머니와 나는 ‘오빠’를 지켜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무너지고 끝내 회복하지 못했다.
- ⑤ 윗글은 어머니와 딸이 ‘오빠’의 죽음에서 비롯된 상처를 견디어 나가는 과정을 그리고 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나 죽거든 행여 묘지 쓰지 말거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상시처럼 잔잔하고 만만치 않았다.
 “네? 다 들으셨군요?”
 “그래, 마침 듣기 잘했다. 그렇잖아도 언제고 꼭 일러두려 했는데, 유언 삼아 일러두는 게니 잘 들어 뒀다 어김없이 시행토록 해라. 나 죽거든 내가 느이 오래비한테 해 준 것처럼 해 다오. 누가 뭐래도 그렇게 해 다오. 누가 뭐라든 상관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건 너밖에 없기에 부탁하는 거다.”
 “오빠처럼요?”
 “그래, 꼭 그대로, 그걸 설마 잊고 있진 않겠지?”
 “잊다니요.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어머니의 손의 악력은 정정했을 때처럼 아니, 나를 끌고 농바위 고개를 넘을 때처럼 강한 줏대와 고집을 느끼게 했다. 오빠의 시신은 처음엔 무악재 고개 너머 별판의 밭머리에 가매장(假埋葬)했다. 행려병사자 취급하듯이 형식과 절차 없는 매장이었지만 무정부 상태의 텅 빈 도시에서 우리 모녀의 가냘픈 힘만으로 그것 이상은 가능한 일이 아니었다. 서울이 수복(收復)되고 화장장이 정상화되자마자 어머니는 오빠를 화장할 것을 의논해 왔다. 그때 우리와 합하게 된 올케는 아비 없는 아들들에게 무덤이라도 남겨 줘야 한다고 공동묘지라라도 이상할 것을 주장했다. 어머니는 오빠를 죽게 한 것이 자기 죄처럼, 젊어 과부 된 며느리한테 기가 죽어 지냈었는데 그때만은 조금도 양보할 기세가 아니었다. 남편의 임종도 못 보고 과부가 된 것도 억울한데 그 무덤까지 말살하려는 시어머니의 모진 마음이 야속하고 정떨어졌으려만 그런 기세 속엔 거역할 수 없는 위엄과 비통한 의지가 담겨 있어 종당엔 올케도 순종을 하고 말았다. 오빠의 삶은 연기가 되고 뼈는 한 줌의 가루가 되었다. 어

머니는 앞장서서 강화로 가는 시외버스 정류장으로 갔다. 우린 묵묵히 뒤따랐다. 강화도에서 내린 어머니는 사람들에게 묻고 물어서 멀리 개풍군 땅이 보이는 바닷가에 섰다. 그리고 지척(咫尺)으로 보이되 갈 수 없는 땅을 향해 그 한 줌의 먼지를 훨훨 날렸다. 개풍군 땅은 우리 가족의 선영이 있는 땅이었지만 선영에 못 묻히는 한을 그런 방법으로 풀고 있다곤 생각되지 않았다. 어머니의 모습엔 운명에 순종하고 한을 지그시 품고 삭이는 약하고 다소곳한 여자가 티는 조금도 없었다. 방금 출전(出戰)하려는 용사처럼 씩씩하고 도전적이었다.

어머니는 한 줌의 먼지와 바람으로써 너무도 엄청난 것과 의 싸움을 시도하고 있었다. 어머니에게 그 한 줌의 먼지와 바람은 결코 미약한 게 아니었다. 그야말로 어머니를 짓밟고 모든 것을 빼앗아 간, 어머니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분단이란 괴물을 홀로 거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어머니는 나더러 그때 그 자리에서 또 그 짓을 하란다. 이젠 자기가 몸소 그 먼지와 바람이 될 테니 나더러 그 짓을 하란다. 그 후 30년이란 세월이 흘렀건만 그 괴물을 무화(無化)시키는 길은 정녕 그 짓밖에 없는가?

㉠“너한테 미안하구나, 그렇지만 부탁한다.”

어머니도 그 짓밖에 물려줄 수 없는 게 진정으로 미안한 양 표정이 애달프게 이지러졌다.

아아, 나는 그 짓을 또 한 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어머니는 아직도 투병 중이시다.

당곡고등학교 (서울)

7. 위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 ① 세 편의 중단편들로 이루어진 연작소설 중 두 번째 작품이다.
- ② 연작 속 세 작품이 모두 연관되어 있으므로 한 편이라도 빠지면 서사적 완결성이 부족하다.
- ③ 작가 박완서는 한국 전쟁과 민족 분단, 황금만능주의에 대한 비판을 담은 작품을 많이 썼다.
- ④ 제목 ‘엄마의 말뚝’은 아들의 죽음으로 가슴에 말뚝처럼 박힌 엄마의 한을 의미한다.
- ⑤ 전쟁에 대한 체험을 개인의 것으로 국한시키지 않고 민족적인 보편성으로 확장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당곡고등학교 (서울)

8. 윗글의 서술 전략만을 모두 고른 것은?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ㄱ. 비유적인 표현을 통해 상황을 실감 나게 묘사하자. ㄴ. 대화와 행동을 통해 인물의 성격을 간접적으로 나타내자. ㄷ. 시대적 배경을 제시해 사회 문제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자. ㄹ. 인물의 심리와 관련된 서술을 추가해 독자의 이해를 돕자. ㅁ. 사건 전개에서 인물의 내적 갈등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하자. |
|--|

“이옥설” 문체 특징

핵심정리		작품의 짜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갈래 고전수필, 한문수필, 설(說) 성격 경험적, 교훈적 주제 잘못을 미리 알고 고쳐 나가는 자세의 중요성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험한 내용을 먼저 제시하고 그에 대한 의견을 덧붙이는 형식을 취함. 일상적 체험에서 얻은 깨달음을 다른 상황에 적용해 해석하는 유추의 방식을 사용함. 		<table border="1"> <tr> <td>처음</td> <td>나의 경험 남은 행랑채를 주리하게 됨.</td> <td>대상 자체의 분석</td> </tr> <tr> <td>중간</td> <td>깨달음 1 - 사람의 품 잘못을 바로 고치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 되지만, 잘못을 바로 고치면 좋은 사람이 됨.</td> <td>대상이 가진 의미 유추</td> </tr> <tr> <td>끝</td> <td>깨달음 2 - 나라의 정치 백성에게 해 됨을 알고도 제때 개혁하지 않으면 불집아 일으키기 어려움</td> <td>대상의 의미 확장</td> </tr> </table>	처음	나의 경험 남은 행랑채를 주리하게 됨.	대상 자체의 분석	중간	깨달음 1 - 사람의 품 잘못을 바로 고치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 되지만, 잘못을 바로 고치면 좋은 사람이 됨.	대상이 가진 의미 유추	끝	깨달음 2 - 나라의 정치 백성에게 해 됨을 알고도 제때 개혁하지 않으면 불집아 일으키기 어려움	대상의 의미 확장
처음	나의 경험 남은 행랑채를 주리하게 됨.	대상 자체의 분석									
중간	깨달음 1 - 사람의 품 잘못을 바로 고치지 않으면 나쁜 사람이 되지만, 잘못을 바로 고치면 좋은 사람이 됨.	대상이 가진 의미 유추									
끝	깨달음 2 - 나라의 정치 백성에게 해 됨을 알고도 제때 개혁하지 않으면 불집아 일으키기 어려움	대상의 의미 확장									

설 & 기		경험을 통한 깨달음과 유추																		
<p>설(說)</p> <p>해석과 서술</p> <p>자기 의사로 뜻과 이치를 해설하고 상세하게 서술하는 문체</p> <p>우의적인 글 (경설, 주희설, 송견설, 뇌설 등)</p>	<p>기(記)</p> <p>사실을 그대로 적는 글</p> <p>사물을 객관적으로 관찰하고 기록하여 기념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둔 글</p> <p>인물, 사건, 물품, 산수풍경 등 (대각명승기, 산수유기, 서화 잡록기, 인사잡기 등)</p>	<table border="1"> <tr> <td>행랑채</td> <td>사람</td> <td>정치</td> </tr> <tr> <td>비가 새는 것을 고치지 않음.</td> <td>잘못을 바로 잡지 않음.</td> <td>백성에게 해가 되는 것을 개혁하지 않음.</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나무가 썩음.</td> <td>나쁜 사람이 됨.</td> <td>백성이 못 살게 됨.</td> </tr> <tr> <td>↓</td> <td>↓</td> <td>↓</td> </tr> <tr> <td>제때 수리해야 함.</td> <td>잘못을 제때 바로 잡아야 함.</td> <td>나라가 위태해지기 전에 개혁해야 함.</td> </tr> </table>	행랑채	사람	정치	비가 새는 것을 고치지 않음.	잘못을 바로 잡지 않음.	백성에게 해가 되는 것을 개혁하지 않음.	↓	↓	↓	나무가 썩음.	나쁜 사람이 됨.	백성이 못 살게 됨.	↓	↓	↓	제때 수리해야 함.	잘못을 제때 바로 잡아야 함.	나라가 위태해지기 전에 개혁해야 함.
행랑채	사람	정치																		
비가 새는 것을 고치지 않음.	잘못을 바로 잡지 않음.	백성에게 해가 되는 것을 개혁하지 않음.																		
↓	↓	↓																		
나무가 썩음.	나쁜 사람이 됨.	백성이 못 살게 됨.																		
↓	↓	↓																		
제때 수리해야 함.	잘못을 제때 바로 잡아야 함.	나라가 위태해지기 전에 개혁해야 함.																		

이옥설과 교술 갈래

- 교술 갈래**

실재하는 사물이나 사건을 통해 작가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전달한 글
- 이옥설**

작가가 직접 겪은 남은 행랑채 수리 경험을 바탕으로 깨달게 된 삶의 이치를 서술

“이옥설” 크리틱 활동 문제

1 ‘나’가 집을 수리하게 된 원인과 그 과정을 정리해 보자.

*원인: 허물어진 행랑채 세 칸이 제대로 버티지 못하게 됨.

*과정: 제때 수리하지 못한 두 칸은 서까래, 추녀, 기둥, 들보가 모두 썩어 경비가 많이 들었으나, 제때 수리한 한 칸은 재목이 온전하여 경비가 적게 들.

2 ‘나’가 집을 수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 두 가지 상황을 찾아보자.

① 사람이 잘못을 알고서 고치는 것

② 나라의 정치에 있어서 백성에게 심한 해가 될 것을 개혁하는 것

3 이 작품의 내용 전개 방식을 파악하고, ‘나’가 이 작품을 읽는 이에게 전하려고 한 내용을 말해 보자.

낡은 행랑채를 수리한 경험에서 유추하여 삶의 이치를 깨닫게 되었고, 그 깨달음에서 유추하여 다시 나라의 정치로 확대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나’는 잘못을 미리 알고 고쳐 나가는 자세의 중요성을 전하고자 하였다.

4 다음은 신영복의 「나는 걷고 싶다」이다. 「이옥설」과 비교하며 교술 갈래의 특성을 파악해 보자.

계수님께

작년 여름, 비로 다 내렸기 때문인지 눈이 인색한 겨울이었습니다.

눈이 내리면 눈 뒤끝의 매서운 추위는 죄다 우리가 입어야 하는데도 눈 한번 전하게 안 오나, 젊은 친구들 기다려 쌓더니 얼마 전 사흘 내리 눈 내리는 날 기어이 운동장 구석에 눈사람 하나 세웠습니다.

옥뜰에 서 있는 눈사람. 연탄 조각으로 가슴에 박은 글귀가 섬뜩합니다.

“나는 걷고 싶다.”

있으면서도 걷지 못하는 우리의 다리를 깨닫게 하는 그 글귀는 단단한 눈 멍치가 되어 이마를 때립니다.

내일 모레가 2월 초하루. 눈사람도 어디론가 가고 없고 먼 데서 봄이 오는 기척이 들립니다.

1월 25일·부 편지와 돈 받았습니다. 계수님의 건강과 발전을 빕니다.

1988. 1. 30.

- 『감옥으로부터의 사색』

(1) 두 작품의 형식상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해 보자.

*공통점: 글쓰기가 경험한 내용을 토대로 삶의 이치에 대해 깨달은 바를 표현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교술 문학의 특징을 보여 주고 있다

*차이점: 「이옥설」은 ‘작가의 일상적 경험 - 작가의 의견과 생각’이라는 2단 구성의 ‘설’이라는 한문학의 관습을 따른 것이다. 이 글은 편지라는 일상의 비형식적인 글을 토대로 자신의 안부를 전하며 경험과 깨달음을 함께 전한다는 면에서 좀 더 자유로운 형식을 취하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집에 오래 지탱할 수 없이 퇴락한 행랑채 세 칸이 있어서 나는 부득이 그것을 모두 수리하게 되었다. 이때 앞서 그중 두칸은 비가 샌 지 오래 되었는데, 나는 그것을 알고도 어물 어물하다가 미처 수리하지 못하였고, 다른 한 칸은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급히 기와를 갈게 하였다.

③ 그런데 수리하고 보니,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서까래, 추녀, 기둥, 돌보가 모두 썩어서 못 쓰게 되었으므로 경비가 많이 들었고,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은 것은 제목들이 모두 완전하여 다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경비가 적게 들었다.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한다. 사람의 몸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잘못을 알고서도 곧 고치지 않으면 몸의 패망하는 것이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이상으로 될 것이고, 잘못이 있더라도 고치기를 꺼려하지 않으면 다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집 제목이 다시 쓰일 수 있는 이상으로 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사도 이와 마찬가지다. 모든 일에 있어서, 백성에게 심한 해가 될 것을 머뭇거리고 개혁하지 않다가, 백성이 못살게 되고 나라가 위태하게 된 뒤에 갑자기 변경하려 하면, 곧 붙잡아 일으키기가 어렵다.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 이규보, 「이옥설」

가락고등학교 (서울)

1. 뒷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교훈적인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한문 수필이다.
- ② 대조와 설의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생각의 대상을 점차 좁혀가며 구체적인 깨달음에 도달하고 있다.
- ④ 자신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비슷한 다른 것에 유추하여 제시하고 있다.
- ⑤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삶의 가치와 사물의 본질에 대한 깨달음을 주고 있다.

가락고등학교 (서울)

2. 뒷글에서 글쓴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잘못은 가능하면 발견한 즉시 바로 고쳐야 한다.
- ②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정치를 해서는 안 된다.
- ③ 매사에 행동을 조심하여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 ④ 잘못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 ⑤ 잘못이 많은 사람이라도 고치려고 노력하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가락고등학교 (서울)

3. <보기>를 참고하여 뒷글을 감상할 때, 뒷글에 쓰인 소재의 상징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170년 정중부 등의 무인(武人)들이 문신(文臣)들을 학살하고 정권을 잡았다. 이 무인 정권은 1270년까지 약 100년간 유지되었는데, 이 시기에 정치는 혼란스럽고 몽골의 침입까지 겹쳐서 백성들의 삶은 매우 어려웠다. 이때 이규보는 다른 문신들과 달리 무인 정권에 참여하여 높은 벼슬을 지냈다. 그가 권세를 위하여 권력자에게 아부한 것인지, 아니면 피폐한 백성들을 위하여 한 몸을 던진 것인지를 두고 많은 논란이 생긴 것은 이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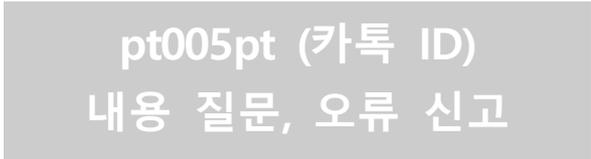
- ① 집 - 고려 왕조
- ② 재목 - 정치를 하는 사람
- ③ 경비 - 백성들의 부담과 고통
- ④ 비가 새는 상황 - 혼란스러운 당시의 정치 상황
- ⑤ 우선 집을 수리하는 일 - 무인정권을 배척하는 일

가락고등학교 (서울)

4. ③과 같은 상황에 쓸 수 있는 속담을 모두 고른 것은?

㉠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
 ㉡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 사후 약방문
 ㉤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 ① ㉠, ㉡, ㉢
- ② ㉠, ㉢, ㉤
- ③ ㉡, ㉢, ㉤
- ④ ㉡, ㉢, ㉤
- ⑤ ㉢, ㉣, ㉤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집에 오래 지탱할 수 없이 퇴락한 행랑채 세 칸이 있어서 나는 부득이 그것을 모두 수리하게 되었다. 이때 앞서 그 중 두칸은 비가 샌 지 오래 되었는데, 나는 그것을 알고도 어물어물하다가 미처 수리하지 못하였고, 다른 한 칸은 한 번 밖에 비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급히 기와를 갈게 하였다.

그런데 수리하고 보니,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서까래, ㉣추녀, ㉤기둥, ㉥돌보가 모두 썩어서 못 쓰게 되었으므로 경비가 많이 들었고,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은 것은 제목들이 모두 완전하여 다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경비가 적게 들었다.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한다. 사람의 몸에 있어서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잘못을 알고서도 곧 고치지 않으면 몸의 패망하는 것이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이상으로 될 것이고, 잘못이 있더라도 고치기를 꺼려하지 않으면 다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집 제목이 다시 쓰일 수 있는 이상으로 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사도 이와 마찬가지다. 모든 일에 있어서, 백성에게 심한 해가 될 것을 머뭇거리고 개혁하지 않다가, 백성이 못살게 되고 나라가 위태하게 된 뒤에 갑자기 변경하려 하면, 곧 붙잡아 일으키기가 어렵다.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 이규보, '이옥설'

동방고등학교 (대전)

5. 이 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유비추리의 방식으로 내용을 전개한다.
- ② 체험을 바탕으로 하여 혼란한 사회를 비판한다.
- ③ 타인의 견해를 인용한 뒤 그에 대한 깨달음을 표현한다.
- ④ 사물의 주관적 외양 묘사를 통해 게으른 자에 대해 경계한다.
- ⑤ 사회의 문제점을 다양한 시각으로 분석하여 해결책을 제시한다.

동방고등학교 (대전)

6. <보기>를 참고하여 이 글을 감상할 때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1170년 정중부 등의 무인(武人)들이 문신(文臣)들을 학살하고 정권을 잡았다. 이 무인 정권은 1270년까지 약 100년간 유지되었는데, 이 시기에 정치는 혼란스럽고 몽골의 침입까지 겹쳐서 백성들의 삶은 매우 어려웠다. 이때 이규보는 다른 문신들과 달리 무인 정권에 참여하여 높은 벼슬을 지냈다. 그가 권세를 위하여 권력자에게 아부한 것인지, 아니면 피폐한 백성들을 위하여 한 몸을 던진 것인지 두고 많은 논란이 생긴 것은 이 때문이다.

- ① ㉠은 고려 왕조를 말한다
- ② ㉡은 혼란스러운 정치를 말한다.
- ③ ㉢은 나라의 백성을 말한다.
- ④ ㉣은 나라의 인재를 말한다.
- ⑤ ㉤은 백성들의 고통을 말한다.

동인고등학교 (부산)

7. 위 글의 전개 방식과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휘어진 나무는 어릴 때 바로잡아 주어야 한다. 성장한 다음에는 바로잡기가 쉽지 않다,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어렸을 때 잘못을 고쳐야지 성인이 된 후에는 고치기가 어렵다.
- ② 희곡은 소설과 마찬가지로 그 표현 수단이 언어를 매개로 한 문학의 한 분야이며, 일정한 인물과 사건 그리고 주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소설과 다를 바가 없다.
- ③ 소설에서의 개연성이란, 현실 세계에 있음직한 가능성을 말하는 개념이다.
- ④ 두루마기 격으로 기모노를 둘렀고 그 안에서 옥약목 저고리가 내어 보이며, 아랫도리엔 중국식 바지를 입었다.
- ⑤ 로봇은 인간의 편리와 복지를 위해서 만들어졌다. 로봇 중에는 위험한 일을 도맡아 하는 것이 있는가 하면, 고도의 정밀 작업을 하는 로봇도 있다.

동인고등학교 (부산)

8. 우리나라의 과거 역사에서 문신들은 학문적 수준이 낮은 무신들을 열등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아래의 글'에 나타난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규보가 문인으로서의 자존심을 버리고 무인 정권에 참여한 것은 두고 동료 문신들은 이규보를 비난하는 말들을 많이 했으리라고 상상해 볼 수 있다. 그 비난에 대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위 글을 썼다고 가정하고, 위 글과 '아래의 글'의 내용을 이용하여 자기를 변호하는 글을 쓰려고 한다. (1)~(3)에 답하십시오.

1170년 정중부 등의 무인(武人)들이 문신(文臣)들을 학살하고 정권을 잡았다. 이 무인 정권은 1270년까지 약 100년간 유지되었는데, 이 시기에 정치는 혼란스럽고 몽골의 침입까지 겹쳐서 백성들의 삶은 매우 어려웠다. 이때 이규보는 다른 문신들과 달리 무인정권에 참여하여 높은 벼슬을 지냈다. 그가 권세를 위하여 권력자에게 아부한 것인지, 아니면 피폐한 백성들을 위하여 한 몸을 던진 것인지를 두고 많은 논란이 생긴 것은 이 때문이다.

(1) 비가 새어 집이 퇴락해 가는 상황은 무엇을 비유(유추)하는지 쓰시오.

(2) (비가 새는 집을) 그대로 두는 것은 무엇을 비유(유추)하는지 쓰시오.

(3) 이규보의 입장에서 무인 정권이 싫어서 몸을 낮추고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는지 쓰시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집에 오래 지탱할 수 없이 퇴락한 행랑채 세 칸이 있어서 나는 부득이 그것을 모두 수리하게 되었다. 이때 그중 두 칸은 비가 샌 지 오래 되었는데, 나는 그것을 알고도 어물어물하다가 미처 수리하지 못하였고, 다른 한 칸은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급히 기와를 갈게 하였다.

그런데 수리하고 보니, 비가 샌 지 오래된 것은 서까래, 처녀, 기둥, 돌보가 모두 썩어서 못 쓰게 되었으므로 경비가 많이 들었고, 한 번밖에 비를 맞지 않은 것은 제목들이 모두 완전하여 다시 쓸 수 있었기 때문에 경비가 적게 들었다.

나는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한다. 사람의 몸도 역시 마찬가지이다. 잘못을 알고서도 곧 고치지 않으면 몸이 패망하는 것이 나무가 썩어서 못 쓰게 되는 이상으로 될 것이고, 잘못이 있더라도 고치기를 꺼려지 않으면 다시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집 제목이 다시 쓰일 수 있는 이상으로 될 것이다.

이뿐만 아니라, 나라의 정사도 이와 마찬가지다. 모든 일에 있어서, 백성에게 심한 해가 될 것을 머뭇거리고 개혁하지 않다가, 백성이 못살게 되고 나라가 위태하게 된 뒤에 갑자기 변경하려 하면, 곧 붙잡아 일으키기가 어렵다.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는가?

- 이규보, 「이옥설」

문정고등학교 (서울)

9.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험에서 출발하여 점차 의미를 확대해 가며 서술하고 있다.
- ② 실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상상을 덧붙여서 글을 완성하였다.

- ③ 사실을 먼저 제시하고 뒤에 자신의 생각을 덧붙이고 있다.
- ④ 집 수리의 경험을 사람의 경우나 정치에 적용하여 사고를 심화하고 있다.
- ⑤ 글의 화자는 글쓴이 자신으로 글의 전면에서 드러나 있다.

문정고등학교 (서울)

10. <보기>에서 윗글과 관계있는 것끼리 바르게 묶인 것은?

<보기>

ㄱ. 한 가지 유사성을 토대로 다른 것도 유사하리라고 판단하는 유추의 발상이 적용되고 있다.

ㄴ. 사물의 이치를 풀이하고 의견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서술하는 한문학의 한 갈래이다.

ㄷ. 인물, 사건, 배경을 제시하여 현장감을 살리고 있다.

ㄹ. 함축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교훈성을 높이고 있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 ④ ㄷ, ㄹ ⑤ ㄱ, ㄹ

문정고등학교 (서울)

11. 윗글에 나타난 깨달음을 다음의 조건에 따라 서술하시오.

<조건>

ㄱ. 하나의 완성된 문장으로 쓸 것

ㄴ. 본문의 구절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고 자신의 언어로 표현할 것

성동고등학교 (서울)

1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구체적인 경험에서 얻은 교훈을 인간사 일반에 적용하여 이치를 밝히고 있다.
- ② 사고의 대상이 '집-사람의 몸-나라의 정사'로 확대되고 있다.
- ③ 체험을 서술하고 그에 대한 깨달음을 나타내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
- ④ 백성에게 해가 되는 개혁은 나라를 위태롭게 할 수 있으므로 삼가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 ⑤ '비가 새는 행랑채'와 '사람의 잘못', '백성을 쯤먹는 무리'가 가진 비슷한 점을 근거로 주장을 이끌고 있다.

“현실 비판” 풍격 영화

핵심정리 작품의 짜임

- ① **갈래** 희곡
- ② **성격** 상징적, 비판적
- ③ **주제** 방향성을 상실한 채 기계적으로 살아가는 현대인의 삶과 인간 소외
- ④ **특징**
 - 특정한 공간 내에서 사건이 전개되며 상반된 가치관을 지닌 인물들이 등장함.
 - 상징을 통해 현대 산업 사회의 문제를 우회적으로 비판함.

발단	고 입에 대한 자양과 기임의 의견이 충돌함.
전개	기임이 상자를 바꿔 놓음.
위기	바꿔 놓은 상자에 대한 소식이 없자 자양은 불안해함.
절정	기임이 다람과 함께 창고를 떠남.
결말	자양은 자신의 삶에 회의하다 다시 창고 일에 몰두함.

등장인물 소개

자양	참고지기이자 노동자 꼼꼼하고 성실한 태도로 자신의 일을 수행하며 신념을 지켜 나가는 보수적이고 고지식한 원칙주의자 티격태격하면서도 기임을 따뜻하게 챙겨줌.
	참고지기이자 노동자 현실에 대한 회의와 불안으로 요령을 부리며 쾌락을 추구함. 입을 것은 자기 배짱뿐이라고 생각

운전사	말을 매개로 젊은 노동자들과 노름을 하여 이익을 얻는 등 세속적이며 현실적인 인물 일의 특성상 비교적 다양한 경험을 함.
다람	트럭 운전사의 딸 쾌락을 추구하는 인물로 근처 모든 참고지기와 사귄 정도로 바람둥이 처음에는 근처 참고지기들과 다른 자양에게 관심을 갖지만 그의 태도에 실망하고 기임과 떠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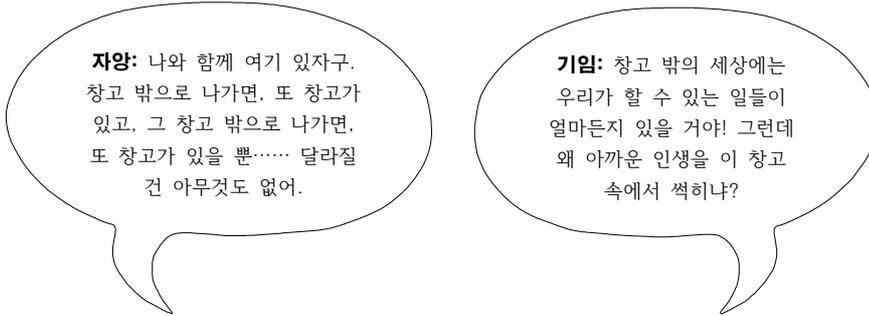
자양과 기임의 태도 무대 공간과 소재

자양	기임
참고 안을 벗어나려는 생각 없음. 나가 봐도 별 수 없다고 생각	참고 밖 세상을 새로운 삶을 뛰어 갈 공간으로 인식
노동력으로 전락해 버린 현대인을 상징	규율과 통제에서 벗어나려는 저항을 보여줌.
인생의 목적과 가치를 잃어 버린 현대인의 참담한 모습	

참고	분업화되고 획일화된 현대 산업 사회
상자 속 부품	부속품으로 전락하고 만 현대인
찢긴 면지	누구도 문제를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사회의 모습
복어 대가리	자양의 모습, 훼손된 현대인의 삶의 모습

“뛰어난 이야기” 크라신 할랑 읽기

1 다음 대사를 읽고 ‘창고 밖 세상’ 을 바라보는 등장인물의 생각이나 태도를 비교해 보자.



- 자양 → 창고 안을 벗어나려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나가 보아도 별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
- 기임 → 창고 밖 세상을 새로운 삶을 열어 갈 공간으로 인식한다.

2 다음 설명을 바탕으로 이 작품에서 무대 공간과 소재가 지니는 의미를 친구들과 함께 파악해 보자.

우의(寓意, Allegory)란 다른 사물에 빗대어 비유적인 뜻을 나타내거나 풍자하는 것을 말한다. 이 작품은 우의를 이용하여 ‘창고’라는 장소를 상징적인 공간으로 설정함으로써 현대 산업 사회 속에서 인간의 삶이 지닌 문제점을 드러내었다.

창고	(분업화되고 획일화된) 현대 산업 사회
상자 속 부속품	부속품으로 전락하고 만 현대인
찢긴 편지	누구도 문제를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사회의 모습
복어 대가리	자양의 모습, 훼손된 현대인의 삶(의 모습)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자양: (편지를 운전수에게 내밀며) 제발 보내야 해요!
 운전수: 여봐, 내가 상자들을 운반하고 다니니까 상자 주인과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인데, 그건 큰 착각이야. ①난 말이야,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싣고 왔다가 그냥 실어 가는 거라구. 실제로 내가 아는 건, 정거장에서 여러 트럭들이 상자를 나눠 받을 때 만나는 분배 반장 딸기코하고, 창고에 보관했다가 다시 나눠 싣고 정거장에 가서 만나는 접수 반장 외눈깔, 그 둘뿐이라구. 딸기코와 외눈깔은 내가 붙인 별명인데, 물론 진짜 이름이야 있겠지. 하지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노름꾼이라 하듯이 나도 그들을 별명으로만 불러. 어쨌든 딸기코가 상자를 분배하는 곳은 정거장의 왼쪽이고, 외눈깔이 상자를 접수하는 곳은 정거장의 오른쪽이야. 그래서 그들은 ②같은 정거장에서 둘 다 상자를 취급하면서도 서로 얼굴 한 번 볼 수조차 없어.

(나)

자양: 그래도 상자 주인에게는 반드시 알려 줘야죠. ③영똥하게 바뀐 상자 하나 때문에 뭔가 잘못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운전수: 잘못 만들어진다니……. 그게 뭔데?
 다량: (멀리서 듣고 있다가 큰 소리로 외친다.) 어떤 굉장한 기계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즐겁고 기쁘게 해 주는 신기한 기계죠!
 운전수: (다량에게 외친다.) 무슨 기계라구?
 다량: (큰 소리로) 기계가 아니라 폭탄이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여요!
 운전수: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자양에게) 어쨌든 상자 속의 부속품으로 뭘 만드느니 알 수는 없어. 만약 폭탄을 만든다면 오히려 상자가 바뀐 것이 사람들의 목숨을 살릴 테니까 잘된 일이잖아? (자양의 편지를 허공에 들고 두 조각으로 찢으며) 여봐, 자넨 너무 배짱이 약해. ④이 조그만 창고 속에서 모든 걸 성실하게 잘했다는 것이, 창고 밖에서는 매우 큰 잘못이 된다고 생각해봐. 그럼 상자 하나쯤 틀렸다고 안절부절못하진 않을 거야. (두 조각으로 찢은 편지를 자양의 바지 양쪽 호주머니에 쑤셔 넣는다.) 무슨 일이 생겨도 창고 밖으로 알릴 필요는 없어. 그게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모를 바에야 그냥 덮어두라구. 창고 속의 ⑤자네한테는, 그게 배짱 편한 거야.
 자양: (손에 들고 있는 서류를 가리키며) 그렇다면 이 서류들은 뭘니까? 누군가 이 서류들을 보면, 상자가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운전수: 서류가 완전하다고 믿는 건 바보들뿐이지! 좋은 예가 있어. 내 아내는 옛날에 죽었는데 사망 신고를 안 했거든. 그래서 구청에서 호적을 떼어 보면 지금도 서류상으로는 버젓하게 살아 있는 것으로 나온다구. 자, 굼벵이 양반, 꾸물대지 말고 어서 상자들이나 옮겨!

(다)

자양: 날 ⑥의붓어미라고 미워했으면서 뭘…….
 기임: 진짜로 미워한 건 아니잖아?
 자양: 나도 알아. (기임을 껴안는다.) 제발 가지 말아! 이 창고도, 나도, 전혀 달라진 게 없잖아?
 기임: 그건 안 돼. 이 창고는 더 이상 내가 살 곳이 아냐.
 운전수: 남자들끼리 헤어지면서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창고 밖으로 나가며) 시간 없어! 나 먼저 트럭에 가서 있을 테니까 너희는 어서 짐 싸 들고 나와!
 다량: (놋쇠 국자로 소리 나게 두드리며) 그만하고, 서로 자기 물건들이나 골라 봐요.
 기임: (자아의 포옹을 풀며) 난 내 물건을 잘 모르겠어. ⑦굼벵아, 네가 골라 줘.
 자양: 아냐, 쓸 만한 게 있거든 모두 내가 가져.
 기임: ⑧너는 이 창고 속에서 혼자 살 텐데…….
 자양: 내 걱정은 말고 어서 먼저 골라 봐.

(라)

다량: (자양의 침대 밑에서 상자 하나를 꺼낸다.) 이걸 뭐죠?
 자양: 복어 대가리죠. 그건 가져가세요. 꼭 필요할 겁니다.
 다량: 복어 대가리……?
 기임: 이게 왜 필요한지는 두고 보면 알게 될 거야. (상자를 열어서 복어 대가리를 하나 꺼내 자양에게 준다.) 난 너한테 이것밖에 줄 게 없군. 내 생각이 날 거야. 항상 곁에 두고 보라구.
 자양: (복어 대가리를 받으며) 그래, 언제나 내 곁에 두고 볼게.

창고 밖에서 트럭의 재촉하는 경음기가 울린다. 다량은 서둘러서 물건들을 담요에 담는다.

(마)

창고 밖으로 떠나는 것이 즐겁다는 듯이 기임의 환호성이 들린다. 트럭 운전수와 다량의 웃음소리로 들린다. 잠시 후, ⑨트럭이 경음기를 울리며 떠나는 소리가 들린다. 창고는 조용해진다. 자양, 식탁 앞에 힘없이 주저앉는다. 늙고 허약해진 모습이다. 그는 식탁 위에 놓여 있는 복어 대가리를 물끄러미 바라본다.

자양: 그래, 나도 ⑩너처럼 머리만 남았군. 그저 쓸쓸하고…… 허무한 생각으로 가득 찬…… 머리만…… 덜렁…… 남은 거야. (두 손으로 복어 대가리를 집어서 얼굴 가까이 마주 바라보며) 말해 보렴, 네 눈엔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그토록 오랜 나날…… 나는 이 어둡고 조그만 창고 속에서…… 행복했었다. 상자들을 옮겨 오고…… 내보내며…… 내가 맡고 있는 일을 성실하게 잘하고 있다는 뿌듯함…… 그게 내 삶을 지탱해 왔었는데……. 그러나 만약에…… 세상이 엉뚱하게 잘못되고 있는 것이라면…… 이 창고 속에서의 성실함이…… 무슨 소용 있는 거지? (사이) 복어 대가리야, 왜 말이 없냐? 멀뚱멀뚱 바라만 볼 뿐 왜 대답이 없어? (복어 대가리를

식탁 위에 내려놓는다.) 아냐, 내 의심은 틀린 거야. 덜렁 남은 머릿속의 생각만으로 세상을 잘못됐다고 판단해선 안 돼. (손수레에 실린 상자를 서류와 대조하며 혼자서 쌓기 시작한다.) 제자리에 상자들을 옮겨 놓아라! 정확하게 쌓아! 틀리면 안 돼! 단 하나의 착오도 없게,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된다.

자양, 느릿느릿 정성을 다해 상자들을 쌓는다. 무대 조명, 서서히 자양에게 압축되면서 암전한다. / -막
-이강백, '복어 대가리'

강일고등학교 (서울)

1. 위 글에 대한 이해와 수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창고'는 등장인물들이 일하는 삶의 공간으로 산업사회에서 개인에게 주어진 공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어.
- ② '기임'은 다령과 창고를 떠나면서 소망을 이루지만, '자양'은 한결같은 신념과 태도를 가지고 창고에 남아서 자아를 실현하고 있어.
- ③ '서류'에 대한 인식으로 볼 때 '자양'은 원칙주의자로 서류를 판단과 행위의 기준을 삼지만, '운전수'는 사회의 부조리에 대한 불신을 갖고 있는 인물이야.
- ④ '상자'는 분업화된 현실에서 실제 사회의 본질적 모습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며, 자양이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무의미한 행동일 수 있다는 회의를 갖게 하는 소품이야.
- ⑤ '자양'과 '기임', '딸기코', '외눈깔'이라는 명명법은 현대 사회의 익명성을 상징하며, 소통이 단절된 현대인의 모습을 의미한다.

강일고등학교 (서울)

2. ㉠~㉣에 대한 반응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다는 '운전수'의 해명으로 '자양'의 요구가 부당함을 주장하고 있어.
- ② ㉡: 산업사회에서 개인이 서로 소통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이렇게 돌려 말하고 있어.
- ③ ㉢: '자양'이 정직하고 성실한 성격이라는 것과 '자양'이 편지를 반드시 전달하고자 하는 이유를 밝히는 부분이군.
- ④ ㉣: 모순된 사회 구조 속에서 개인의 맹목적인 성실함이 오히려 사회에 해악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군.
- ⑤ ㉤: 창고 안과 밖의 선명한 대비를 통해 '자양'의 외롭고 쓸쓸한 모습이 부각되었군.

강일고등학교 (서울)

3. 다음 중 지시하는 대상이 다른 하나는?

- ① a ② b ③ c ④ d ⑤ e

서문고등학교 (서울)

4. 윗글을 바탕으로 한 '복어 대가리'의 의미로 가장 적절한 한 것은?

- ① 가치관의 혼란을 겪으며 방향성을 상실한 현대인의 모습
- ② 진정한 자아를 찾으려고 부단히 노력하는 현대인의 모습
- ③ 쓸쓸하고 허무한 생각을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현대인의 모습
- ④ 가치관의 혼란을 감수하며 이상적인 삶을 지향하는 현대인의 모습
- ⑤ 머리에 온갖 생각이 가득한 채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는 현대인의 모습

서문고등학교 (서울)

5. 윗글에 나타난 '자양'의 신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이 맡은 일을 책임감 있고 성실하게 하는 것이 옳다.
- ② 어둡고 조그만 창고 속에서의 삶 자체가 행복의 근원이다.
- ③ 창고 밖의 세상은 잘못되어 있고, 성실함은 의미가 없는 것이다.
- ④ 서류는 믿을 수 없으며 자신이 하는 일 자체만 진실로 믿을 수 있다.
- ⑤ 자신이 하는 일에 정성을 다하면 새로운 삶이 펼쳐질 것이므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고전여자고등학교 (경기)

6. 윗글의 등장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 ① 기임의 내적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이 전개된다.
- ② 운전수는 타인의 상황에 관심을 두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인다.
- ③ 자양은 자신의 경험을 근거로 편지를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④ 기임은 개인의 성실함이 오히려 해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⑤ 다령은 욕심은 많지만 혼자 남겨진 자양을 걱정하는 태도를 보인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앞부분의 줄거리 ▶ 두 명의 창고지기인 자양과 기임은 새벽마다 트럭에 실려 온 상자를 내리고 창고에 보관된 상자를 트럭에 싣는 일을 한다. 매사에 꼼꼼하게 일하는 자양과 달리 기임은 자신의 일에 회의를 느끼며 자양의 성실함을 못마땅하게 생각한다. 기임은 상자를 싣고 내리는 일보다 트럭 운전수의 딸인 다령과의 만남에 열중한다. 창고를 나가고 싶어 하는 기임은 다령의 부추김에 상자 하나를 바꾸어 트럭에 싣는다. 이를 뒤늦게 알아챈 자양은 잘못 나간 상자 번호를 확인하고, 상자 주인에게 잘못을 시인하는 편지를 쓴다.

창고 밖으로 상자들을 옮기고 있던 자양과 트럭 운전수 사이에 언쟁이 벌어진다. 자양은 트럭 운전수에게 ㉠편지를 전달해 주도록 간청하고 운전수는 목청을 높여 가며 거절의 이유를 설명한다.

운전수: 그건 미친 짓이야! 일부러 잘못했다고 편지를 보낼 필요는 없어!

자양: (편지를 운전수에게 내밀며) 제발 보내야 해요!

운전수: 여봐, 내가 상자들을 운반하고 다니니까 상자 주인과 통할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인데, 그건 큰 착각이야. 난 말이야,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싣고 왔다가 그냥 실어 가는 거라구. 실제로 내가 아는 건, 정거장에서 여러 트럭들이 상자를 나눠 받을 때 만나는 분배반장 딸기코하고, 창고에 보관했다가 다시 나눠 싣고 정거장에 가서 만나는 접수반장 외눈깔, 그 둘뿐이러구. 딸기코와 외눈깔은 내가 붙인 별명인데, 물론 진짜 이름이야 있겠지. 하지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지 않고 노름꾼이라 하듯이 나도 그들을 별명으로만 불러. 어쨌든 딸기코가 상자를 분배하는 곳은 정거장의 왼쪽이고, 외눈깔이 상자를 접수하는 곳은 정거장의 오른쪽이야. 그래서 그들은 같은 정거장에서 둘 다 상자를 취급하면서도 서로 얼굴 한번 볼 수조차 없어.

자양: 별명이든 이름이든 상관없어요. (편지를 억지로 운전수 손에 쥐어 준다.) 상자를 싣고 가는 곳에 내 편지를 갖다주면서, 다음 사람에게 전달하라고 하면 되거든요.

운전수: 내가 자네 편지를 외눈깔에게 주면, 외눈깔은 그다음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다음 사람은 또 다음 사람에게…… 계속해서 운반되는 상자들을 따라가 맨 나중에 주인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거지?

자양: 네, 바로 그겁니다.

운전수: 그게 또 큰 착각이러구. 부속품이 든 상자들은 말야, 중간중간에서 여러 갈래로 수없이 나눠지거든.

자양: 부속품 상자들은 결국 한 군데로 모아지는 것이 아닙니까?

운전수: 물론, 모아지는 곳도 있겠지. 상자들이 한 군데에서 나와 여러 군데로 흩어지느냐, 여러 군데에서 나와 한 군데로 모아지느냐……. 그건 그럴 수도 있고, 그렇

지 않을 수도 있어. 어쨌든 중간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

자양: 그래도 상자 주인에게는 반드시 알려 줘야죠. 엉뚱하게 바뀐 상자 하나 때문에 뭔가 잘못 만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운전수: 잘못 만들어진다니……. 그게 뭔데?

다령: (멀리서 듣고 있다가 큰 소리로 외친다.) 어떤 굉장한 기계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즐겁고 기쁘게 해 주는 신기한 기계죠!

운전수: (다령에게 외친다.) 무슨 기계라구?

다령: (큰 소리로) 기계가 아니라 폭탄이래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여요!

운전수: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네! (자양에게) 어쨌든 상자 속의 부속품으로 뭘 만드는지 알 수는 없어. 만약 폭탄을 만든다면 오히려 상자가 바뀐 것이 사람들의 목숨을 살릴 테니까 잘된 일이잖아? (자양의 편지를 허공에 들고 두 조각으로 찢으며) 여봐, 자넨 너무 배짱이 약해. 이 조그만 창고 속에서 모든 걸 성실하게 잘했다는 것이, 창고 밖에서는 매우 큰 잘못이 된다고 생각해봐. 그럼 상자 하나쯤 틀렸다고 안절부절못하진 않을 거야. (두 조각으로 찢은 편지를 자양의 바지 양쪽 호주머니에 쑤셔 넣는다.) 무슨 일이 생겨도 창고 밖으로 알릴 필요는 없어. 그게 잘한 일인지 못한 일인지 모를 바에야 그냥 덮어두라구. 창고 속의 자네한테는, 그게 배짱 편한 거야.

자양: (손에 들고 있는 ㉡서류를 가리키며) 그렇다면 이 서류들은 뭘니까? 누군가 이 서류들을 보면, 상자가 잘못된 것을 알 수 있을 텐데요?

운전수: 서류가 완전하다고 믿는 건 바보들뿐이지! 좋은 예가 있어. 내 아내는 옛날에 죽었는데 사망 신고를 안 했거든. 그래서 구청에서 호적을 떼어 보면 지금도 서류상으로는 버젓하게 살아 있는 것으로 나온단구. 자, 굵벙이 양반, 꾸물대지 말고 어서 상자들이나 옮겨!

<중략>

자양: 그래, 나도 너처럼 머리만 남았군. 그저 쓸쓸하고…… 허무한 생각으로 가득 찬…… 머리만…… 덜렁…… 남은 거야. (두 손으로 복어 대가리를 집어서 얼굴 가까이 마주 바라보며) 말해 보렴, 네 눈엔 내가 어떻게 보이는지? 그토록 오랜 나날…… 나는 이 어둡고 조그만 창고 속에서…… 행복했었다. 상자들을 옮겨 오고…… 내보내며…… 내가 맡고 있는 일을 성실하게 잘하고 있다는 뿌듯함…… 그게 내 삶을 지탱해 왔었는데……. 그러나 만약에…… 세상이 엉뚱하게 잘못되고 있는 것이라면…… 이 창고 속에서의 성실함이…… 무슨 소용 있는 거지? (사이) 복어 대가리야, 왜 말이 없냐? 멀뚱멀뚱 바라만 볼 뿐 왜 대답이 없어? (복어 대가리를 식탁 위에 내려놓는다.) 아냐, 내 의심은 틀린 거야. 덜렁 남은 머릿속의 생각만으로 세상을 잘못됐다 구 판단해선 안 돼. (손수레에 실린 상자를 서류와 대조하며 혼자서 쌓기 시작한다.) 제자리에 상자들을 옮겨 놓아라! 정확하게 쌓아! 틀리면 안 돼! 단 하나의 착오

도 없게,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된다.

자양, 느릿느릿 정성을 다해 상자들을 쌓는다. 무대 조명, 서서히 자양에게 압축되면서 암전한다.

-이강백, '복어 대가리'

당곡고등학교 (서울)

7. 위와 같은 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무대 상연을 전제로 쓰여진 글이다.
- ② 현재 진행형의 문장으로 표현되는 글이다.
- ③ 작가의 개성이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글이다.
- ④ 주로 등장인물의 행동과 대사로 사건이 진행되는 글이다.
- ⑤ 시간적, 공간적 배경과 등장인물의 수에 제약이 있는 글이다.

당곡고등학교 (서울)

8. 위와 같은 글의 특성을 고려하여 이해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앞부분의 줄거리'에서 '자양'과 '기임'은 동료이지만 성격이 서로 다른 인물로 나타난다.
- ② '창고'는 인물들의 생활 공간으로, 분업화된 산업사회에서 외부와 단절된 공간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 ③ '편지'는 잘못을 시인하는 글이지만 실제로는 외부 세계와 소통하고자 하는 자양의 욕망을 암시한다.
- ④ '자양과 운전수의 대화'는 분업화와 익명성이라는 현대 산업 사회의 특징을 암시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⑤ 운전수에게 한 '다령'의 대사는 현대 문명의 양면적 특성을 함축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다.

금촌고등학교 (경기)

9. 뒷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역동적인 다양한 공간에서 사건이 전개되고 있다.
- ② 상징적이고 우의적인 소재들을 활용하여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③ 등장인물들은 같은 일에 종사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동일하다.
- ④ 등장인물 모두는 서로를 탐색하고, 자신의 편의를 위해 다른 인물들을 이용하고 있다.
- ⑤ 인물 간의 갈등을 통해 사건이 전개되며, 외적 갈등의 해소가 주제의 형상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금촌고등학교 (경기)

10. 뒷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운전수와 다리는 창고지기와 다르게 기계의 부속품처럼 생활하고 있다.
- ② 등장인물들은 진정한 자아를 상실한 채 모두 다 책임감만 강하게 남은 사람들이다.
- ③ 복어대가리는 생각만 가득한 무기력한 인간을 상징하며 떠나는 다령과 동일시되고 있다.
- ④ 기계와 폭탄은 획일화 되어 있는 현대 산업 사회가 개인에게 부여한 삶의 과업이라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
- ⑤ 짐을 내리고 쌓는 단순한 행위의 반복, 등장 인물의 이름 등에서 부분적이고 폐쇄적인 현대인의 삶이 드러나고 있다.

금촌고등학교 (경기)

11. 운전수의 대사를 통해 유추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운전수는 부조리한 사회에 대해 불신을 가지고 있다.
- ② 획일화되고 기계적으로 분업화된 현대 산업 사회의 모습이 드러나 있다.
- ③ 익명적 개인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소통이 어려운 사회상을 보여주고 있다.
- ④ 운전수는 파편화된 사회 구조 속에서 개인의 성실함은 오히려 해악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⑤ 편지를 전하지 않은 운전수를 통해 부조리한 사회에 맞서지 못하는 현대인의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금촌고등학교 (경기)

12. 뒷글과 <보기>를 비교하여 분석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제 손으로 만들지 않고 / 한꺼번에 싸게 사서 / 마구 쓰다가
망가지면 내다 버리는 / 플라스틱 물건처럼 느껴질 때
나는 당장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싶다
현대 아파트가 들어서며 / 흥은동 사거리에서 사라진
털보네 대장간을 찾아가고 싶다
풀무질로 이글거리는 불 속에 / 시우쇠처럼 나를 달구고
모루 위에서 버리고 / 숯돌에 갈아
시퍼런 무쇠낫으로 바꾸고 싶다
맘 흘러며 두들겨 하나씩 만들어 낸 / 꼬부랑 호미가 되어
소나무 자루에서 송진을 흘리면서 / 대장간 벽에 걸리고 싶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 온통 부끄러워지고 / 직지사 해우소
아늑한 나락으로 떨어져 내리는 / 똥덩이처럼 느껴질 때
나는 가던 길을 멈추고 문득 / 어딘가 걸려 있고 싶다

- 김광규, '대장간의 유혹'

III 이생규장전

1.⑤ 2.죽은 '최 씨'가 등장하여 이승의 '이생'과 만나 는 비현실적 사건을 통해 죽음을 초월한 남녀 간의 애절한 사랑을 드러낸다. 3.④ 4.① 5.④ 6.⑤ 7.①② ③ 8.② 9. (1) 인물과 사회 (2) 인물과 사회 (3) 인물 과 운명 (4) 죽음을 초월한 남녀간의 애절한 사랑이 라는 주제를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10. (1) 옥이 부서 지고 꽃도 흩날리네 (2) 흥건적의 침입 때문에 최 씨 가 죽게 되었다. (3) 인물의 심리를 비유적, 함축적으 로 제시하고 있다. 11.④ 12.④ 13.④ 14.④ 15.② 16. ④ 17.③ 18.① 19.④ 20.(1) ㉠ 최 씨 ㉡ 두 번의 이 별 (2) 이생과 최 씨의 이별을 암시한다. 21.인물의 심리를 비유적으로 표현한다. 작품의 분위기를 형성 한다. 22.② 23.② 24.③ 25.③ 26.④ 27.③ 28.④ 29. ④ 30.② 31.② 32.③ 33.죽은 최 씨가 다시 살아나기 때문이다. 34.④ 35.③ 36.② 37. 이생과 최씨는 만남 과 이별을 반복하는 사랑으로 작품의 비극성을 높이 고 있다. 38.(1) 흥건적의 난 (2) 창과 방패가 눈에 가 득한 싸움터 39.옛 성현이 말씀하시기를 '아버이 살 아 계실 때는 예로써 섬기고, 돌아가신 후에는 예로 써 장사 지내야 한다.'라고 했는데 당신의 천성이 효 성스럽고 인정이 두터웠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다 처 리할 수 있었던 것이오. 40.①⑤ 41.③ 42.① 43.④ 44.④ 45.⑤ 46.② 47.③ 48.주체적이고 적극적인 성 격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인물의 능동적인 성격은 봉 건적 사고와 세계의 횡포에 대한 저항을 효과적으로 그려 사랑과 자유로운 인간의 삶에 대한 지향을 드 러내고 있다. 49.① 50.⑤ 51.③ 52.죽은 최씨가 환생 하여 이생과 인연을 이어가는 시절 53.③ 54.④ 55. ②

III 엄마의 말뚝 2

1.④ 2.④ 3.③ 4.③ 5.③ 6.④ 7.② 8.③ 9.② 10.①⑤ 11.⑤ 12.③ 13.③ 14.④ 15.④ 16. ㉠저승사자, ㉡군 관, ㉢아들 17.③ 18.⑤ 19.② 20.⑤ 21.④ 22.④ 23. ① 24.홀로 두 자녀를 억척스럽게 키워 낸 어머니의 의지 25.④ 26.② 27.㉠: 남북 분단에 따른 비극을 극 복하려는 의지 ㉡: 분단의 비극을 정면으로 맞서려는 의지 28.과거의 아들이 어머니 자신의 눈앞에서 죽게 되었고 그 일을 현재 환각으로 겪게 됨. 29.⑤ 30.③ 31.④ 32.1) 홀로 두 자녀를 억척스럽게 키워 낸 어 머니의 의지 2) 고향을 떠나 서울에 와서 정착한 삶 의 터전 33.④ 34.② 35.분단이 극복되지 않은 한 어

머니의 정신적 상처가 치유되지 않을 것임. 36.② 37. ③ 38.③ 39.1) 홀로 두 자녀를 억척스럽게 키워 낸 어머니의 의지 2) 고향을 떠나 서울에 와서 정착한 삶의 터전

III 이옥설

1.③ 2.① 3.⑤ 4.④ 5.① 6.③ 7.① 8.(1)비가 새어 집 이 퇴락해가는 상황은 정치가 혼란스러워지고 나라 가 어려워지는 것을 비유한다. (2)비가 새는 집을 그 대로 두는 것은 무인정권이 싫어서 몸을 낮추고 정 치에 참여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 비가 새는 집 을 그대로 두면 나중에 고치는데 비용이 더욱 많이 든다고 하였으므로, 나라에 위기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도 발견하면 즉시 바로잡아야지 그러지 않으면 후에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 뒤늦게 고치려 든 다면 나라의 인재는 이미 잃은 후이고, 백성들의 부 담과 고통도 더욱 커질 것이다. 9.② 10.① 11. 잘못 이 있다면 그 즉시 고쳐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나중 에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12.④ 13.③ 14.① 15. ⑤ 16.① 17.③ 18.① 19.⑤ 20.④ 21.⑤ 22.④ 23.① ⑤ 24.지은이가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결국 '나라의 정사'를 바로잡는 것이다. 25.④ 26.② 27.③ 28.④ 29.⑤ 30.③

III 북어 대가리

1.② 2.① 3.⑤ 4.① 5.① 6.② 7.③ 8.③ 9.② 10.⑤ 11.⑤ 12.⑤ 13.① 14.② 15.기계 부품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문제 삼음. 16.③ 17.③ 18.⑤ 19.의붓어미, [의붓어미] 20.② 21.⑤ 22.③ 23.두 작품 모두 산업 사회에서 진정한 자아를 상실한 채 살아가는 현대인 의 모습을 문제 삼고 있다. / '보기'는 화자의 내적 독백을 통해 주제를 전달하는 반면, 이 희곡은 등장 인물 간의 갈등 속에 전개되는 사건과, 해설, 지문, 대사 등의 요소를 활용하여 주제를 전달한다. 24.① 25.① 26.② 27.③ 28.⑤ 29.⑤ 30.④ 31.② 32.자양: 판단과 행위의 기준, 사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 다는 믿음을 보여 줌. / 운전수: 신뢰할 수 없는 대 상, 사회의 거대한 부조리함에 대해 불신을 드러냄. 33.⑤ 34.③ 35.④ 36.운전수는 분배반장을 딸기코로 부르고, 접수 반장은 외눈깔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그 둘은 운전수를 노름꾼이라 부른다. 이를 통해 익 명성을 갖고 진정한 소통은 하지 못하는 현대사회의 문제를 비판함. 37.③ 38.④ 39.북어 대가리 40.④ 41.

III 이생규장전

1.⑤

① 전란으로 인하여 도적이 최 씨를 죽여 이별하게 됨. ② 전쟁 후 이생이 최 씨의 집으로 가서 재회하게 된다. ③ 전란 후에 만난 다른 이의 도움 없이 재회한 것임.

3.④

▶㉔: 3차 만남 이후 최 씨의 집에서 사랑이 지속됨.

4.①

▶㉖와 ①은 임과의 이별로 인한 슬픔을 나타냄.

② 억압적 현실과 자유 갈망 ③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애환 ④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 ⑤ 아름다운 이상에 대한 그리움과 자기 성찰

◆주제 저장소◆

- ① <귀족도>: 임에 대한 그리움과 정한(情恨)
- ② <새>: 억압적 현실에 대한 절망과 자유에 대한 갈망
- ③ <사평역에서>: 막차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애환
- ④ <여승>: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
- ⑤ <별 헤는 밤>: 아름다운 과거에 대한 그리움과 자기 성찰

▶였다, 1등급 조언◀

주제는 작품 전체를 아우르는 포인트에 해당한다. 주제를 통해 화자의 정서를 충분히 살펴볼 수 있다. 외부 지문을 다 공부 할 수 없다면 주제만이라도 눈에 익도록 나올 때마다 머릿속에 넣어두자. 그러다 보면, 시의 주제에 대한 큰 틀이 형성되며 시의 전체를 읽지 않더라도 화자의 정서 파악이 자연스럽게 연결된다.

5.④

▶㉚: 흥건적의 난 때 홀로 살아남은 죄책감을 말함.

▶넣어둬, 패던 공략◀

감각적인 묘사
 산문: 주로 수사법과 관련됨
 운문: 주로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과 관련됨

▶어머, 이건 외워야 해!◀

신성성 vs 전기적
 ㄱ. 신성성: 인간의 능력, 범위를 초월한 신적인 특성
 ㄴ. 전기적: 비현실적이고 기이한 특성

<신성성>이 <전기적> 특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지만 모든 <전기적> 특성이 <신성성>을 지니는 것은 아니다.

6.⑤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마다 애처로워하며 그들의 절의를 사모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를 통해 알 수 있음.

① 시의 삽입을 통해 서정적 분위기를 조성함. 서술 방식은 오히려 이질적임. ② 외부 상황으로 인한 외적 갈등을 중심으로 이야기

기를 전개한다. ③ 순행적 구성임. ④ 서술자가 등장인물의 심리와 성격을 직접적으로 제시한다.

▶어머, 이건 외워야 해!◀

1. 내적 갈등 vs 외적 갈등 (★★★)
 ㄱ. 내적 갈등: 마음속 내면의 고민, 걱정
 (짜장, 짬뽕 무엇을 먹지)
 ㄴ. 외적 갈등: 인물vs인물 / 인물vs사회 환경이 서로 대립
 (부모와 자식 간의 가치관의 차이/자유를 빼앗은 일제에 대한 인물의 투쟁)

2. <소설 구성>의 분류에 대해 알아보자. (★★)
 1) 중심 사건의 수와 형태에 따라
 ㄱ. 단일 구성: 중심 사건 1개
 ㄴ. 복합 구성: 중심 사건 2개 이상
 ㄷ. 액자식 구성: (겉 이야기+속 이야기)
 ㄹ. 피카레스크식 구성: 독립된 여러 개의 이야기를 통일성을 갖도록 모아서 전개.

2) 사건의 진행 방식에 따라
 ㄱ. 평면적 구성(순행): 사건의 발생 순서에 따라 진행됨
 ㄴ. 입체적 구성(역순행): 사건이 역순행적으로 구성되어 진행됨

▶어머, 이건 외워야 해!◀

3. (성격, 심리, 태도 등) 직접적 제시 vs 간접적 제시 (★★★)
 ㄱ. 직접 제시: 서술자가 직접 관련된 어휘 사용. (소심, 차분, 완벽하다 등) → 전지적 시점과 연관
 ㄴ. 간접 제시: 인물의 대화, 행동을 통해 객관적으로 제시됨 → 관찰자 시점과 연관

▶넣어둬, 패던 공략◀

설화적 기법: 기이하고 비현실적인 방법이 사용됨

7.①②③

▶① 죽은 최 씨가 다시 나타나는 등의 비현실적 요소가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를 줄일 필요가 없음. ② 이생과 최 씨의 만남은 진지한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지기에 밝고 경쾌하게 묘사할 필요가 없음. ③ 시청자가 현실을 잊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새롭게 인식할 기회를 주어야 함.

▶넣어둬, 패던 공략◀

* (비현실적, 기이한, 신이한)은 같은 맥락의 어휘이다.
 * 비현실적 요소가 많은 고전 소설에서 초월적 존재나 그 배경과 관련된 것은 자주 출제되는 요소이다.

▶어머, 이건 외워야 해!◀

1. 산문 문학의 현실성 정도 (★)
 ㄱ. 설화: 초(비)현실적인 것이 대부분
 ㄴ. 고전 소설: 초(비)현실적인 비중이 높음.
 ㄷ. 현대 소설: 현실적인 것이 대부분
 ㄹ. 수필: 완전한 현실적인 것

2. 고전 소설의 특징 (★)
 ㄱ. 비현실적인 요소 多,

ㄴ.사건의 우연적 전개,
ㄷ.서술자의 개입 등

8.②

▶㉠ : 두문불출(집에만 있고 바깥출입을 아니함)과 상관없음.

▶**넣어둬, 패턴 공략**◀

작품 속에 반영된 종교(철학) 관련 어휘 맥락

유교적: 충성, 효도, 학문, 수양, 임금, 우정...

불교적: 환생, 인연, 이별, 자비, 선행...

도교적: 자연친화, 신선사상, 옥황상제, 초현실적...

11.④

▶해피엔딩이라는 대부분의 고전 소설의 결말과 다름.

12.④

▶죽어서 다시 나타난 최 씨의 이야기를 듣고 이생은 기쁘고도 감격함.

13.④

▶㉡ : 흥건적의 침입으로 어지러운 세상

▶**어머, 이걸 외워야 해!**◀

1. 의문문 VS 설의법 VS 문답법 (★★★)

ㄱ.의문문: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을 하여 그 해답을 요구함.

ㄴ.설의법: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평서문)을 의문문으로 제시해 강조함.

ㄷ.문답법: 스스로 묻고 답함으로써 강조함.

(상대의 나이를 궁금해 하는 상황)

A: 나이가 몇인가 →(일반 의문문)

B: 20살입니다

(나이에 걸맞지 않은 행동으로 상대를 질책하는 상황)

A: 나이가 몇인가 (나이에 걸맞지 않다)의 강조! →(설의법)

B: 죄송합니다 (물음에 대한 대답이 아님!)

(자신의 삶을 성찰하는 상황)

나이가 몇인가 →(문답법)

내 나이 이제 40

잠시 나를 돌아보자

똑같은 의문형 어미(-가)로 끝난 똑같은 문장이라도 맥락에 따라 다른 표현기교로 사용될 수 있다. 물음에 대해 상대의 대답을 요구하면 '일반 의문문, 내가 대답하면 '문답법'이며 '설의법'은 형식만 의문문이지 실제로는 평서문의 강조 형태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답을 기대하지도 또한 답이 나올 필요도 없다.

2. 빈출 비유법 (★★★)

1)직유법: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직접적으로 연결하여 표현하는 것. '마치', '흡사', '같이', '처럼', '듯' 등의 연결어를 사용함.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2)은유법: 원관념과 보조관념을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표현하는 것. 'A는 B다'라는 형태로 표현됨. (내 마음은 호수요)

3)의인법: 사람이 아닌 동식물이나 무생물, 개념을 사람처럼 표현하는 것. (별이 내게 속삭였다.)

4)활유법: 생명이 없는 것을 생명이 있는 것처럼 표현하는 것. (냉장고가 숨을 쉬고 있다)

5)풍유법: 원관념을 드러내지 않고 보조관념으로 뜻을 암시하는 것. (등잔 밑이 어둡다)

6)대유법: 대상의 부분, 특징, 모양 등을 들어, 대상 전체를 나타내는 방법.

(사람은 빵만으로는 살 수 없다.) →(빵: 음식, 먹거리)

7)의성법: 사물의 소리를 본 딴 말을 사용하여 실제와 비슷하게 나타내는 방법. (멍멍, 줄줄줄)

8)의태법: 사물의 모양을 본 딴 말을 사용하여 실제와 비슷하게 나타내는 방법. (영금영금, 슬금슬금)

14.④

▶㉢에서는 운명에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이생이 저승길의 운수를 수용함.

16.④

▶㉡ : 이생과 최 씨의 재회가 허무하게 끝나도록 설정해 놓음으로써 불교적인 무상관을 반영하고 있다.

17.③

▶ [B] : 옛 성현의 말을 인용하여 효(孝)를 중시하는 이생의 태도를 드러냄.

▶**어머, 이걸 외워야 해!**◀

인용의 종류 (★★)

ㄱ.직접 인용: 남이 한 말을 그대로 옮김

(큰 따옴표 있으면 직접 인용)

ㄴ.간접 인용: 남이 한 말을 화자의 말과 문맥 안으로 옮김

-엄마가 "오늘은 집 밖에 나가지 마!"라고 했어.(직접 인용)

-최근 한 전문가의 연구에 따르면, 2050년에는 전 세계 희토류 수요량이 약 80만 톤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간접 인용)

지문에서 인용을 빨리 찾기 위해서는 먼저 큰 따옴표에 집중! 다음에, ~(라)고, ~다고, ~다는, ~라는 등의 말에 집중하자

18.①

▶(가)를 제외한 나머지는 죽인 최 씨가 나타난 이후이기 때문에 전기적 요소가 드러남.

19.④

①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환생은 불교 사상을 반영함. ③ 행복했던 이생과 최 씨의 만남도 결국 끝을 맞이하게 되니 이는 불